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스케일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계의 섬 쓰시마의 초국경연합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사례로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 지 혁



# 스케일정치에 관점에서 바라본 경계의 섬 쓰시마의 초국경연합

조선통신사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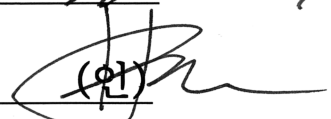
지도교수 박 배 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박 지 혁

박지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위원장 Douglas R. Gress (인) 

부위원장 박 배 균 (인) 

위원 Todoroki Hiroshi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주의적 인식과 담론의 영향으로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 동아시아의 경계공간에 대한 진단과 대안적인 경계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일 경계공간, 쓰시마에 주목한다. 쓰시마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존재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공간이다. 본 연구는 쓰시마라는 경계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일 경계지역으로서 쓰시마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지리적 맥락을 탐구한다. 또한, 오늘날 쓰시마에 존재하는 초국적 성장연합이 만들어졌던 배경적 상황과 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초국적 연합의 사례로서 2017년 11월 확정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주목한다. 유네스코 등재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쓰시마라는 경계공간이 갖는 특성을 도출해낸다.

역사지리적 맥락에서 쓰시마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교류와 충돌이 있어왔던 공간이다. 쓰시마는 시대에 따라 인접한 세력의 역학관계와 영향력의 역동에 따라 외교적 양속성을 갖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해왔다.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국제관계 속에서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따라서 언제나 전략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경계공간’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성장연합은 오늘날 인구감소로 섬의 위기를 맞은 쓰시마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식으로, 우발적인 상황과 맥락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쓰시마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통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의 유지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연합하여 한국 부산지역과 초국적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쓰시마를

찾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쓰시마의 지역발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초국적 성장연합의 핵심 사례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을 바라보는데, 특히 부산과 쓰시마의 지역 행위자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상호작용하면서 초국경적 성장연합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초국경적 성장연합의 형성 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로 국가단위의 행위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지역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초국경적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끌어내었다.

이 연구는 성장연합과 스케일 정치라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쓰시마라는 경계공간이 갖는 특성과 생존전략을 분석하고, 쓰시마와 부산이라는 한일경계 양쪽의 두 지역이 초국경적 연대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만연한 국가주의적 국가경계인식을 벗어난 대안적 경계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어** : 쓰시마, 스케일정치, 초국경연합, 성장연합, 경계공간, 대마도  
**학 번** : 2017-28038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5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8
1. 연구대상 .....	8
2. 연구방법 .....	14
3. 논문의 구성 .....	16
제 2 장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검토 .....	18
1. 경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동아시아의 국가경계 .....	18
1. 탈영토주의: 다중스케일적 복합공간으로서 국가경계 .....	18
2. 동아시아 국가경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	20
2. 지역성장정치와 스케일정치 .....	23
1. 성장연합이론 .....	23
2. 스케일정치 .....	25
3. 선행연구 고찰 .....	28
4. 연구의 분석틀 .....	30
제 3 장 쓰시마와 한일경계의 역사지리적 맥락 .....	32
1. 근대이전 .....	32
1. 가교적 역할의 태동 .....	32
2. 한반도와 왜구, 그리고 쓰시마 .....	33
3. 위기와 숙명적 외줄타기: 삼포왜란과 임진왜란 .....	36
4. 성신교린의 시기, 왜관의 교류와 조선통신사 .....	38



2. 근현대와 오늘날 .....	42
1. 역할의 상실과 단절 .....	42
2. 관광을 통한 재연결 .....	44
3. 역사지리적 맥락에서의 함의 .....	46
<b>제 4 장 쓰시마 성장정치</b> 의 스케일적 분석 .....	<b>48</b>
1. 지역활성화를 위한 쓰시마의 성장연합 .....	48
1. 쓰시마 내부의 위기의식 .....	48
2. 성장연합의 결성과 ‘교류의 섬’ 담론의 등장 .....	52
3. 성장연합의 지역스케일 뛰어넘기 : 일본 내 광역스케일의 성장연합 형성-NPO연지연 .....	56
2. 성장연합의 국가스케일 뛰어넘기 .....	59
1. 한국과의 연결과 초국경교류의 시작 .....	59
2. 한국인 관광객유치 성공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	63
3. 쓰시마시·나가사키현 정부의 지역활성화정책과 관광산업 ·	68
4. ‘경계의 섬’의 이면 :국가주의적 갈등과 오버투어리즘 ·	73
<b>제 5 장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b> .....	<b>78</b>
1. 초국적 스케일의 성장연합: 한-일 공동등재 .....	78
1. 부산과 쓰시마의 상황적 맥락 .....	78
2. 공동등재를 위한 초국적 연합 .....	80
2. 지역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초국적 연합 .....	82
1. 상황적 배경: 국가적 갈등상황과 경색된 한일관계 .....	82
2. 지역 행위자들의 추진 .....	84
3. 성공적인 스케일 뛰어넘기, 연대의 공간 형성 .....	87
1.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과정과 결과 .....	87
2. 연대의 공간 형성을 통한 지역성장 .....	91
<b>제 6 장 결론</b> .....	<b>95</b>

1. 결론	95
2. 제언	97
참고문헌	98
Abstract	106

## 표 목 차

[표 1-1] 면담조사 대상자 구성표 .....	15
[표 4-1] 쓰시마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49
[표 4-2] 쓰시마시 산업별 인구 구성과 변화 .....	51
[표 4-3] 이즈하라아리랑축제와 조선통신사 행렬의 변화과정 ..	60
[표 4-4] 부산과 쓰시마의 초국경교류(1986-2004) .....	62
[표 4-5] 쓰시마 관광업의 발달과 고속선 관련 주요 사건일지	64
[표 4-6] 쓰시마 공식 홍보자료 표제 모음 .....	67
[표 4-7] 쓰시마 마을·사람·일자리 상생종합전략 인구감소대책 - 교류대책 .....	70
[표 4-8] 쓰시마 지역 시책과 방향성 .....	71
[표 5-1]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공동등재 추진부회 구성 단체 ...	86
[표 5-2] 한국 추진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 ..	87
[표 5-3] 일본 추진부회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재과정 .....	88

## 그 립 목 차

[그림 1-1] 쓰시마 내부 정(町)단위 행정구역과 두 항구 .....	10
[그림 1-2] 쓰시마의 지정학적 위치성 .....	12
[그림 2-1] 연구 분석틀 도식화 모형도 .....	31
[그림 3-1] 동래부지도에 나타난 왜관과 쓰시마 .....	40
[그림 4-1] 쓰시마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49
[그림 4-2] 쓰시마시 산업별 인구 구성과 변화 .....	51
[그림 4-3] 쓰시마시 연령별 인구분포 그래프 .....	52
[그림 4-4] 쓰시마 내 성장연합 이즈하라마츠리 실행위원회 구성 ..	55

[그림 4-5]	연간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 변화 ..	65
[그림 4-6]	관광책자 ‘일본유산 국경의 섬’ 표지 .....	66
[그림 4-7]	관광책자 ‘일본유산 국경의 섬’ 내 페이지 .....	66
[그림 5-1]	한국 측 공동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	85
[그림 5-2]	일본 측 세계기억유산 공동등재 추진부회 구성 ....	85
[그림 5-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 .....	91
[그림 5-4]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이즈하라쵸 중심가	93
[그림 5-5]	조선통신사 테마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	93



# 제 1 장 서론

## 1. 문제제기

### 1) 연구배경

국가경계에 관한 논의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지리학에서 국가경계는 전통적으로 근대적인 국가주의적 영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정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계에 대한 인식은 지난 2, 3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적 이념의 몰락을 동반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국가 영역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하였고, 국가스케일을 벗어난 대안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근대국가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영역성에 의한 인식론이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의해 흔들림에 따라 국가경계에 대한 논의에서도 기존의 고정적이고 국가중심적인 경계에서 구성적이고 관계론적인 경계인식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경계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경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혹은 주변 행위자들의 실천에 주목하여 그들에 의해 경계가 구성되는 맥락과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경계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을 통해 영역적 사고에서 탈피해 연결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 주목(박배균, 2012)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요컨대, 국경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 또는 독점적 영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개방된 이동과 흐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계연구는 경계가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주요 논점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경계에 대한 논의가 구성주의적·관계론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국가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국가중심적인 논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국가경계는 여전히 국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정적인 물리적 구분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동아시아에서 국가주의적 영토분쟁과 영유권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국가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시각을 편협하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초국경적 교류는 국가적인 수준 이외에도 수많은 층위와 스케일에서의 역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스케일에 입각한 관점만으로는 포착해내지 못하거나 본질적인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기존의 국가적 스케일 뿐 아니라 도시·지역과 같은 미시적인 스케일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하부 스케일의 역동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초국경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심층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국경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나 초점은 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일간의 국경 지역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 지역인 쓰시마에 특별히 주목함으로써 한·일국경의 의미를 구성주의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경계의 섬 쓰시마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쓰시마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경계의 섬으로서 형성되어 온 독특한 지리적·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쓰시마는 부산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다. 쓰시마는 경작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자연조건 속에서 고대로부터 큐슈 북부와 한반도를 잇는 교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교류’의 섬이자, 동시에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분쟁’의 최전선이였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쓰시마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안 한반도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왔다.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서 끊임없이 두 세력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존재해왔고,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쓰시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결과 단절, 갈등과 화평의 역사를 반복하며 한반도 남부, 특히 부산지역과 관계를 형성하고 왕래하였다. 중세에는 당시 섬의 지배세력인 소씨(宗氏)<sup>1)</sup>를 매개로 조선과 왜 사이의 관계가 전개되었고, 메이지유신 이래로는 나가사키에 편입되어 국방상의 요충지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 남동부지역과 쓰시마 사이에는 공적 차원과 민간차원 모두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계에 관한 논의의 측면에서 쓰시마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쓰시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 교류와 갈등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 시대에 따른 정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역사에 대한 접근이 주가 되어왔다. 국내에서 쓰시마에 관한 연구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배경에서 쓰시마가 한반도와 관련을 맺어온 역사적 사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중에서도 상당수의 연구는 조선 시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시기 쓰시마에 관한 연구는 한-일관계사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sup>2)</sup> 하지만 쓰시마와 한일국경에 관한 연구는 현대사 논의에 이르러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승만 라인<sup>3)</sup>과 교역의 통제 등 국경 지역의 상호

---

1) 13세기 중반부터 메이지시대 이전까지 600년에 걸쳐 쓰시마를 통치했던 지배세력 가문이다(최진희, 2013).

2) 왜구와의 관련성, 임진왜란과 왜관, 조선통신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1952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의해 발표된 선언으로, 대한민국에 인접한 해양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으로도 불리는 이 선언은 한·일간의 어업기술과 선박의 규모 및 수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한반도 영해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한반도 주변 해역을 통제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사전에 원천봉쇄하여 영해와 주변 수역에 대한 국가 주권을 선도적으로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작용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국가경계의 차원에서 한·일경계에 관한 연구는 독도에 치중되어 쓰시마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관점에서 쓰시마를 주목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쓰시마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경계의 관점과 구성적 경계의 관점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쓰시마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두 지역 사이에 새로운 역학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대중매체에서 ‘대마도’에 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또 한국과 쓰시마 사이에서 민관을 막론하고 여러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동시에 오버투어리즘의 문제 또한 불거져 쓰시마 내부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경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가주의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쓰시마에 관한 논의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가져와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7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쓰시마라는 한·일 국경 공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타 사례와 달리 한 국가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에 의해 공동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은 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국가의 이념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거나 정치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해 유네스코 유산등재를 둘러싸고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이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강릉단오제’를 두고 중국에서 자국의 풍습임을 주장하며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고,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군함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관해 한국 각계에서 항의나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네

---

졌다(배규성, 2013).

스코 유산등재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프로젝트로 국가 간 갈등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던 당시 국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비롯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국가가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문화재 기록물 등재신청을 하고, 또 등재에 성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등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행위자에 의한 추진이 아닌, ‘부산과 쓰시마’라는 국가 하부 지역 차원의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여타 유네스코 유산들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국가주도의 사업이 아닌, 로컬스케일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계에서의 협력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쓰시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경계에서 상반된 층위의 경계관념이 혼재되어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경계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사이 경계의 섬, 쓰시마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일 경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역사지리적 맥락에서 쓰시마의 경계성에 관해 고찰하고, 쓰시마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정치를 스케일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더 나아가 쓰시마가 국경을 넘어 한국과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교류의 흐름에 주목하여 최근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사례로 한·일경계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지역행위자들의 연합에 의해 경계의 성격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한·일 국경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7년 11월에 확정·공포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사례로, 쓰시마의 지역 행위자가 한-일 경계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성장정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치의 관점에서 쓰시마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행위자들은 한·일 경계를 사이에 두고 연합하여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기록유산 공동등재라는 국경을 넘어선 연합적 프로젝트를 ‘성장연합’의 구체적인 사례로 바라보고, 이러한 초국경적 연합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쓰시마의 초국적 성장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과거 쓰시마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경계공간으로 존재하면서 겪었던 경계성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포함된다. 쓰시마의 경계성은 두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적 맥락과 실제적 실천의 수행을 포착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쓰시마라는 섬이 역사·지리적으로 겪어온 맥락과 내포하는 담론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쓰시마 지역 내부에서 형성된 성장연합에 대한 스케일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시마 내부 행위자들이 성장연합을 결성하였던 상황을 추적하고, 그것이 스케일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장연합이 초국적 스케일로 확장된 대표적·상징적 사례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가 이루어진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부산과 쓰시마의 행위자들이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게 되었던 상황적 배경과 맥락을 추적하고, 지역 단위의 자치단체에 의해 등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즉, 부산과 쓰시마에서 아래로부터의 지역교류와 협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마의 지역성장정치와, 스케일적 확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경계공간으로서 쓰시마의 공간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한·일 경계지역으로서의 쓰시마는 어떤 역사·지리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 둘째, 쓰시마의 초국적 성장연합은 어떠한 상황적 배경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것의 스케일적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셋째,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는 누구에 의해,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한국과 일본, 두 국가 사이의 국경은 민족과 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담론이 충돌하여 빚어지는 사회·정치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경계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연합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쓰시마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은, 동아시아에 여전히 만연한 국가주의적 영역성과 인식론적 고정관념을 타파해나가는데 단초적 역할을 하는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쓰시마가 최근 동아시아의 지리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안적인 경계인식이 시작되는 출발지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한국과 일본 사이 국경에 위치하는 ‘경계의 섬’ 쓰시마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의 연구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쓰시마라는 섬에 대한 지역연구이다. 경계에 대한 구성주의적·관계론적 인식에서 경계는 경계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실천, 맥락과 담론 등 사회적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 해상에 놓인 국제법상의 제도적 국경을 다루기보다, 두 국가 사이에서 양국을 아우르는 역동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 쓰시마 섬을 ‘경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경계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쓰시마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공간적 특질, 즉 경계성을 분석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로, 경계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국제적 교류의 사례로 쓰시마와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주목한다. 특히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등재과정에서 부산과 쓰시마의 행위자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연합하여 의해 한·일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전반을 추적한다.

이를 정리하면, 경계공간으로서 쓰시마가 갖는 의미는 쓰시마 섬의 지역연구 차원에서 섬이 경험한 역사적 역동과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성장연합이 스케일을 뛰어넘어 확장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두 대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 (1) 경계공간 쓰시마

쓰시마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의 큐슈(九州)섬 사이 한일경계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상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대마도’<sup>4)</sup>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쓰시마시 전체의 인구는 31,090명으로 3만 명을 근소하게 상회한다(쓰시마시, 2018). 섬의 면적은 696.29km<sup>2</sup>로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이며 일본 내에서 본토의 네 개 섬을 제외한 부속도서들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큰 섬에 해당한다.

남북 82km, 동서 18km의 남북으로 기다란 모양의 쓰시마는 섬 중앙부가 섬들이 겹겹이 위치하고 복잡한 해안선을 갖는 리아스식 해안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지형적 장애물로 인해 섬은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된다.<sup>5)</sup> 섬 내부적으로는 해류와 얇은 파도의 영향으로 사빈의 발달이 적고 해안에는 절벽이 발달해있다. 또한, 면적의 89%가 해발고도 200~300m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섬 전체적으로 평지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섬 내부의 육로 발달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19세기까지도 도내 마을 사이의 왕래는 해안을 따라 오가는 연락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쓰시마는 농경지 및 생활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평지가 매우 적고 그마저도 섬 둘레를 따라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섬은 [그림1-1]에서 살펴보듯, 6개의 작은 마을 단위 행정구역(町)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촌락은 해안에 산재해 있는 좁은 평지에 작은 규모로 형성돼있다. 현대적 기술로 개간이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경지율은 불과 1.3%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나

---

4)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의거, 외국 지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 한자어의 독음보다 현지의 표기를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판단하에 ‘쓰시마’로 표기한다.

5) 쓰시마섬은 본래 하나의 연결된 섬이었지만 1912년, 일본 중앙정부가 군사적 이동성의 확보를 위해 섬 중앙부 리아스식 해안에서 가장 협소한 육로를 절단해 ‘만제키세토(万関瀬戸)’라 불리는 운하를 건설하면서 섬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림1-1] 쓰시마 내부 정(町)단위 행정구역과 두 항구

가사키현에 속하는 ‘리도(離島)<sup>6)</sup>’ 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sup>7)</sup>

6) 일본은 기본적으로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다섯 개 섬을 ‘본토’ 로, 여타 섬들을 ‘리도(離島)’ 로 구별하고 있다. 리도는 유인(有人)리도와 무인(無人)리도로 세분되고, 421개의 유인리도 중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109개와 기타 법률의 대상이 되는 51개를 제하고 261개 도서가 리도진흥법(離島振興法)의 대상이 된다.

7) 이것은 쓰시마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하는 이키(壺岐)섬과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으로, 쓰시마는 이키섬의 5배에 달하는 전체 면적을 가지면서도, 경지면적의 측면에서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쓰시마의 경지면적이 915ha인데 반해, 이키섬의 경지면적은 3815ha에 달한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해왔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섬 자체적인 산업의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쓰시마의 거주민들은 자연적 제약과 척박한 환경에 의해 과거로부터 농경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끊임 없이 섬 외부로의 진출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였다.

한편, 쓰시마는 식민주의의 기억과 영토주의적 분쟁 등 다양한 맥락과 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계공간이다. 쓰시마가 경계지역으로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혹은 ‘한국으로 건너는 징검다리’ 라는 수식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한해협<sup>8)</sup>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지정학적 위치성에서 비롯된다. 쓰시마와 부산의 최단 직선거리는 49.5km, 규슈 본토와 쓰시마의 최단거리는 80km 안팎으로 한국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sup>8)</sup> 외부로의 교통편은 쓰시마 내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 이즈하라(巖原)의 여객터미널에서 이키섬을 거쳐 후쿠오카로 향하는 선박이 운행되고 있고, 이즈하라와 히타카츠의 두 항구에서 부산으로 여객선이 매일 운행되고 있다. 고속선으로 이즈하라에서 부산까지 1시간 40분, 히타카츠에서는 1시간 10분이 걸리는 반면, 이즈하라에서 후쿠오카로는 2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이동 거리의 측면에서도 한국과 더 가까이 위치한다.

이와 같은 한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쓰시마는 대륙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나가사키현, 2016).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시마는 두 국가세력의 중간지점에서 규슈와 한반도 동남부를 잇는 해상교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왔다. 부산과 후쿠오카라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가 쓰시마의 남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과거 해상교통이 국제운송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었을 시기, 쓰시마의 지리적 중요성을 반추해볼 수 있다.

---

8) 쓰시마에서 한국, 또 쓰시마에서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는 측정기준이 되는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헌 및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수치를 내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문헌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는 한국에서 쓰시마 사이의 거리 49.5km를 서술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쓰시마와 규슈 사이의 거리는 표기하지 않는다.





[그림 1-2] 쓰시마의 지정학적 위치성

## (2)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 내부의 행위자가 한국 부산지역의 행위자와 연합하여 만들어낸 성장연합의 스케일적 확장의 결과로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라는 사건에 주목한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였던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와 관련한 기록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서, 여정 기록, 문화 기록, 서화 작품 등 총 111건 333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등재의 성공은 여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와 달리,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대체로 국가주의적 차원에서 단일국가에 의한 정부 주도의 등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지방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주도하였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 11월에 확정된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는 조선통신사 행렬이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닿은 부산과 일본에서 가장 먼저 닿은 쓰시마 두 지역의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이미 이전부터 협력 관계에 있던 부산문화재단과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NPO朝鮮通信使緣地連絡協議會)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과거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지역에 남아있는 문서나 서화와 같은 기록물을 수합, 목록을 정비하였다. 이후 공동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형태로 2016년 1월 공동조인식을 거쳐 3월에 신청하였고, 2017년 10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sup>9)</sup>에서 등재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독특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던 쓰시마와 부산의 주요 행위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자들이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갖고, 국경을 뛰어넘는 연합을 형성하여 공동등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맥락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의 진행은 성장연합의 초국적 스케일로의 확장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쓰시마가 경계지역으로 갖는 지역성과 이를 구성하는 담론들에 대해 도출해내는 과정이 이어진다.

---

9) IAC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인 경험 연구로, 문헌연구와 면담조사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1) 문헌연구

우선 쓰시마의 지역성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쓰시마의 성장연합과 조선통신사와 관련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쓰시마가 역사적으로 경계지역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사료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쓰시마에서 성장연합이 결성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쓰시마 자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쓰시마와 나가사키현에서 발간되는 관광홍보자료 및 인구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쓰시마 시립도서관과 나가사키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서적과 신문, 출판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고, 쓰시마 시청과 나가사키현 현청을 방문해 정책보고서와 관광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들 기관의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여 배포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식 또한 이루어졌다. 인식조사를 위한 온라인 자료수집의 경우, ‘조선통신사’, ‘대마도’, ‘쓰시마관광’ 과 같은 키워드로 기사 혹은 게시물을 검색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쓰시마에 대한 개인, 혹은 특정 매체의 담론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 (2) 면담조사

면담조사는 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과정과 관련한 행위자들에 대해 이루어졌다. 2018년 여름부터 쓰시마와 부산을 방문하여 유네스코 공동등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행위자와 관계부처 행위

자들과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존재하는 협력적 연합정치를 분석해내기 위해 이들 각각이 공동등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식했던 관념이나 가치관, 목적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위자들에 대해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현직부처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면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유선 통화 혹은 서면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대상자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면담조사 대상자 구성표

연번	직 책	방 식	일 자
강연1	(당시) 조선통신사관련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 한국측 추진위원회 학술부위원장	강연	2018. 7. 13
면담1	(현) 쓰시마시 국제교류원	대면면담	2018. 8. 3.
면담2	(당시) 조선통신사관련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 한국측 추진위원회 학술위원장	서면면담	2018. 10~12.
면담3	(당시) 조선통신사관련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 한국측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당시) 부산문화재단 국제교류팀장	전화면담	2018. 11. 28
면담4	(현) 쓰시마부산사무소장	서면면담	2018. 11
면담5	(현)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사무국장 (현) 쓰시마 시 시청 근무	서면면담	2018. 11

### 3. 논문구성

본 연구는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서론에 이은 다음 2장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를 종합하여 경계연구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한다. 기존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 이론적 위치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 전반을 엮어낼 이론적 자원을 개념화하여 두 가지 이론적 개념을 설정한다. 먼저 한일경계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경적 협력,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도시정치를 분석하는 틀의 하나로서 지역성장정치를 가져와 분석틀로서의 적합성을 논한다. 이렇게 두 이론적 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3장은 역사·지리적 맥락을 바탕으로 쓰시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를 쓰시마 중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쓰시마와 한반도, 일본열도 사이에서 교류와 접촉이 이어진 관계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쓰시마를 읽어내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맥락을 짚어낸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변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따라 어떤 위상과 지위를 선점하고 역할을 바꿔가며 생존해왔는지를 포착하는 과정은 현재의 쓰시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의 바탕이 된다.

4장에서는 쓰시마의 성장연합을 스케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내·외부의 행위자들이 ‘의존의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적 범위의 확장을 위해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의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쓰시마 내부에서 성장연합이 형성되고, 둘째, 쓰시마의 성장연합이 일본 국내 다른 지역과의 연합으로 확장되고, 셋째, 최근 성장연합의 스케일이 국경을 뛰어넘어 쓰시마와 부산지역 사이에서 초국경 성장연합의 형성으로 확장되기까지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때의 상황적 맥락과 내외부적 역학을 스케

일의 관점에서 비추어 조망하면서 쓰시마가 경계공간으로서 갖는 공간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쓰시마의 성장연합이 초국경 스케일로 확장되어 부산지역과 연합하여 형성된 초국경 성장연합의 사례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여기에 관련된 부산과 쓰시마의 행위자와 그들이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냈던 과정을 추적하여 유네스코 공동등재라는 사건 이면에 있는 두 지역의 상황과 목적을 탐구한다. 한-일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두 지역의 연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일 경계가 갖는 다층적인 특성을 해체적으로 바라본다.

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 제2장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검토

### 1. 경계에 관한 논의와 동아시아의 국가경계

#### 1) 탈영토주의: 다중스케일적 복합공간으로서 국가경계

오늘날 널리 알려진 ‘국경’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기원한다(Okhonmina, 2017). 근대 유럽 국가들은 끊임 없는 전쟁을 반복하며 갈등과 연합을 계속해왔고, 베스트팔렌조약은 그 끝에 도출해낸 상호협약이었다. 이 국제적 규약을 계기로 근대적 국제관계와 주권개념이 확립되었고, 각 국가의 영토성과 주권,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이것을 근간으로 근대국가의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이 설정되면서, 서로의 영역을 규정하고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국가경계가 등장하였다(Croxton, 1999).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경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지리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 영토는 고정된 주권 작동의 공간이고, 경계는 국가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며, 경계를 통해 둘러싸인 영토국가는 사회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Angew, 1994).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국경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이면서 고정적인 물리적 장애물로 인식되었다(Kolossov, 2005). 이어서 이에 입각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세계질서는 제국주의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4세기 이상 지속되었다.

서구의 근대화는 이렇게 국민국가의 건설과 함께 이루어졌고, 20세기 사회과학 전반은 ‘국가’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인식체계 속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지구화, 혹은 세계화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경계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바람을 맞는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물자와 자본, 인력의 왕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가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인식단위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sup>10)</sup>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뿐 아니라 지방(local)에 대한 역할과 주체성을 인식하고 주목하는 ‘지방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방화(glocalization)<sup>11)</sup>와 같은 복합적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영역성의 변화로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던 공간적 범주화의 경향이 흐려졌고(Passi, 2003), 국민국가의 종말(Ohmae, 1995)이 주장되기도 했다. 그 결과, 사회과학의 인식 전반을 비롯해 경제논의에서도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한 대안적 인식론이 등장하였다. 국가중심적 접근을 통해 주권과 영토성, 경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이해는 ‘영토주의적 함정(territorial trap)(Agnew, 1994)’, 혹은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Brenner, 2004)’라는 비판을 받으며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이해를 강조하는 ‘다중스케일(multi-scale)’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세계화는 국가스케일이 유일한 기준으로 여겨지던 인식체계에 그보다 더 상위, 그리고 하위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스케일의 재편/전환’(re-scaling)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대안적 관점은 지역단위에서 세계단위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Newman and Passi, 1998).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경계와 영토를 사회정치적 구성의 관점을 통

---

10) 이러한 초경계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움직임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연합의 결성이다. 유럽연합과 NAFTA(북아메리카자유경제구역)과 같이 국가스케일 이상의 권역, 혹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위의 연합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강화되면서, 국가 단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이동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자본 및 기술,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층위에서 연합과 협력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 소속의 각국이 각자의 다른 역할을 담당하여 에어버스를 공동 제작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국경을 뛰어넘는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11) 현대 사회, 정치, 경제 체계 내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현상을 뜻한다(Encyclopidia Britannica; ‘Glocalization’).



해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Sack, 1986). 그동안 국가경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실제로 일어나는 역동’에 주목하였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주의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Newman and Passi, 1998). 특히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던주의의 영향으로 경계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실천과 담론에 깊이 뿌리내려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Passi, 2005), 국경에 대한 맥락성과 서사성(narrativity)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Kolossov, 2005). 따라서 국가경계, 혹은 접경지역은 다양한 스케일과 주체들을 엮어내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처럼 경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국가경계를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주의적 인식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와 맥락에 의해 달라지는 가변적인 개체로 바라보는 구성주의적·관계적 인식으로 전환되었다(Passi, 1998).

## 2) 동아시아 국가경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경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계인식이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성, 혹은 국가의 영역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역사·정치·경제적으로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국가성은 중화사상적 국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존재하였다(노명호, 2009).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근대화와 서구열강의 침입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중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는 붕괴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성의 변화를 맞는다. 이들은 서구열강에 의해 식민지, 혹은 제국주의와 같은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방식의 근대화과정을 거쳤고(윤상호, 2014), 이후 곧장 한국전쟁과 냉전이라는 전 세계적 규모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전후처리와 역사적 청산, 국내통합, 정체성 확립 등의 과업은 유예되어왔다(최운

도·배진수, 2015).

동아시아 국가는 영토와 주권체계가 갖춰진 ‘근대민족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완의/불완전한 근대화’ 상태에 머물렀다(윤상호, 2014). 그리고 이들은 ‘발전주의국가’의 기조 아래 강력한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국가경계·영역성을 엄격히 통제하였다(박배균, 2006).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탈냉전과 지구화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각국은 국제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비로소 유예되었던 근대화가 수면 위로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삼국은 각각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한국), 공산국가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으로(중국),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일본) 국가성의 전환을 통해 근대적 완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토분쟁과 역사갈등과 같은 국가주의적 이념을 활용하여 역내 세력경쟁을 자극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 내부의 민족주의를 재결집하고 있다(윤상호, 2014). 각 국가가 민족주의적 담론을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상황에서 인접한 국가 간에는 대립 혹은 갈등의 요소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최운도·배진수, 2015). 결국,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결과로 국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국가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적 세력경쟁과 갈등상황의 원동력인 신민족주의의 구조는 중화체제에서 근대국가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대 이후 냉전과 탈냉전기를 거치며 나타난 지역 국제정치적 변동과 그 이념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만연한 국가주의적 갈등과 충돌은 국가성 전환과 더불어 지역 질서의 변동과 국가발전, 역 내외 안보 질서의 중층적 구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관관계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맥락을 갖는 동아시아권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담론의 생산 및 재생산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특수한 경계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한층 더 복합적인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중화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되었던 문화적 우월의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식민통치기를 거치며 형성된 국가주의적 피해의식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한일국경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한일경계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창위, 2018). 이처럼, 한-일 국경은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담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계공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인식의 기본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그 단위영역 내부의 질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밀도 있는 촘촘한 접근과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박배균, 김동완, 2013, p.129)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가경계는 여러 스케일의 맥락과 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 Agnew, 1994)’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층적 스케일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계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일경계에서 국가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 혹은 갈등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논의의 흐름을 벗어나 지방(로컬)의 스케일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즉 한일국경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지방 도시 및 지역에 초점을 맞춰 로컬수준에서 존재하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앞서도 언급했듯, 한일국경은 식민주의와 과거의 역사 인식이 얽혀 국가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경계이다. 두 국가 사이에는 각각의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반된 정치적 관점이 존재하고, 여기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인식틀에서 벗어나, 그보다 상위의, 혹은 하위의 스케일에서 경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전환적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2. 지역성장정치와 스케일정치

위와 같이, 동아시아의 경계논의에 대해 국가주의적 관점을 탈피한 대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스케일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관점으로 로컬스케일이 경계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로컬스케일에서 지역 단위의 역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자원으로, 도시정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설정한다. 도시정치에 대한 초기의 접근은 도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접근에서 이루어졌는데, 도시에서 자본주의가 형성하고 작동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 내부의 정치적 역동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동반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시정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도시정치’ 혹은 ‘도시성장의 정치’와 같은 논의에 의해 대체·보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 로컬주의적 접근에 해당하는 성장연합논의와, 그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보완하여 등장한 오하이오횡과계열의 스케일정치에 관한 논의(박배균, 2006; 163)에 주목하여, 이들 개념을 설명하고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 1) 성장연합 이론

성장연합, 혹은 ‘성장정치’(growth politics)는 도시정치의 논의에서 초기 카스텔과 하비 등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벗어난 신도시정치 계열의 이론 중 하나이다. Logan과 Molotch(1987)는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 토지에 기반을 둔 지역의 기업과 엘리트집단이 연합하여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고 도시정치를 지배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연합은 도시 정부가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도시정치의 방향을 이끈다. 그 결과, 자본주의 도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장 중요한 목적 및 가

치로 설정하고 추구한다. 이러한 연합을 형성하는 ‘성장지향적 엘리트 집단’에는 토지나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자본을 보유한 은행 등이 핵심적으로 속하고, 언론, 대학,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기반산업업체와 같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자들도 포함된다(박배균, 2006; 164).

위와 같은 로컬주의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도시정치, 즉 성장연합에 관한 논의는 도시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특정 장소에 고착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하여 고려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로, 성장연합을 연구하는 지역의 인식론적 범위를 특정 도시 혹은 지역에 해당하는 ‘로컬’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이 외부의 지역 및 행위자와 영향을 주고받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도시 내부의 정치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도시 정부가 특정 도시나 지역 스케일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외부행위자들과의 교류, 또는 협력을 만들어내는 도시 외부적 연합의 사례에 대해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장연합의 관점에서 분석한 지역의 정치에 관한 연구는 Glasgow 사례(장세룡·류지석, 2010)나 새만금(이성호, 2008)의 사례처럼 특정 지역 내부의 연합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도시나 지역이 로컬의 스케일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하는 사례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공간 범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국경을 가로지르는 성장연합에 주목하는 논의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장연합에 관한 기존의 논의의 두 번째 한계점으로, 관광과 같은 소프트파워<sup>12)</sup>적인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앞의 두 사례 -글래스고와 새만금-와 울산과 포항을 사례로 대기업도시의 성장연합을 분석한 박재욱

---

12)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보과학이나 문화·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Nye, 1990).

(1997)의 연구에서 보듯, 기존의 성장 연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 등 경제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반면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아닌, 문화, 혹은 관광과 같은 측면에서의 목적을 달성해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연합에 대해서는 논의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 2) 스케일정치

성장연합이론은 미국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것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틀이기 때문에, 도시정치를 설명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박배균, 2006). 보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개념화가 필요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Cox와 Mair(1988)는 토지기반적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국지적 의존성(local dependency)’의 개념을 제시한다. 콕스(Cox, 1998)는 이와 같은 국지적 의존성을 바탕으로 지역 공간에 생존을 위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을 설명하였다. ‘의존의 공간’은 영역적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동원을 바탕으로 다른 공간과 차별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의존의 공간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고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공간적으로 뻗어있는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존의 공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에서의 사회적 관계들은 의존의 공간이 갖는 차별적 특성을 끊임없이 해체하려 시도한다. 이에 대응해 의존의 공간을 바탕으로 자기이해의 실현을 의존하는 행위자들은 의존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뿌리내린 의존의 공간을 뛰어넘는 정치적 연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정치를 둘러싼 공간을 확장시킨다(박배균, 2012). 이처럼 도시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넓은 지역적 범위에 있는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스케일의 확장’은 성장연합에 관한 논의에 스케일이론을 결합하여 도시정치를 해석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을 도출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스케일 뛰어넘기’는 특정 사회세력들이 권력투쟁의 과정 속에서 기존 스케일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글로벌하거나 또는 보다 로컬한 새로운 스케일을 창출함을 통해 기존의 권력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전략을 의미한다. 스케일을 활용하는 ‘스케일 뛰어넘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연대의 공간 ‘은 이런 정치적 연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확장된 스케일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행위자가 자신의 특정 이해관계에 맞추어 스케일을 형성하는 과정을 ‘스케일의 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스케일은 본래 축척을 뜻하는 지도학적 개념으로, 지리학에서 자연·인문 사건, 과정, 관계들이 일어나고 작동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 작동의 범위를 의미한다(McMaster and Sheppard, 2004). Brenner(2001;592)는 지리연구의 폭넓은 경향성의 측면에서 고정되고 제한되고,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지리적 스케일이 과정과 진화, 역동, 사회정치적 갈등과 역동을 강조하는 생산/구성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과정이 발생하는 범위를 지칭하는 스케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의(박배균·김동완, 2013, p.129)를 차용하여, 사회관계의 지리를 다르게 만드는 관점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콕스의 도시정치에 대한 스케일적 해석에서 행위자들은 각각 특정 사건이나 과정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간적 스케일을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하려 한다. 따라서 스케일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투쟁의 대상이며 담론적, 물질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박배균, 2013; 38-39). 스케일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것으로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의해 변화하는 존재들이며 관계적으로 이해된다. 스케일 논의에서 여러 스케일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공간적 차별화와 관련이 있는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스케일보다,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을 갖는 수직적 차별화에서 스케일들 사이의 위계에 주목한다. 기존의 사회과학에서는 큰 스케일의 과정이 작은 스케일의 과정보다 추동력과 영향력 상에서 우위를 가져 하향적인 위계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스케일 간의 수직적 관계를 하향적인 일방향적 위계로 보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스케일적 (multi-scalar)’ 과정으로 이해하는(Park, 2005; 박배균,2001) 측면에서 스케일이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위계(nested hierarchy), 혹은 축소판(micro-cosm)으로 스케일을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층위나 규모가 아닌 관계로서의 스케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호윗(Howitt 1993, 36)과 맥을 함께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을 견지하여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이 스케일을 뛰어넘어 만들어내는 연대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연대의 공간은 지역단위를 뛰어넘는 보다 큰 스케일에서의 연합을 포함하고, 기업위주의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성장연합 논의에서 벗어나 문화와 관광이라는 매개를 통한 연합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글로벌 스케일의 움직임과 로컬한 스케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도시정치의 역동에 대한 포착과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장소와 특정 사건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실제적이고 역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선행연구 고찰

쓰시마에 관한 학술연구는 해류, 지질·지형적 특성, 혹은 야생동물 등, 자연적 대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인문적 측면의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쓰시마가 한반도와 관련을 맺어온 역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의 시대적 배경은 고대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의 대다수는 조선 시대에 쓰시마와 조선 사이에서 있었던 역사적 접촉,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조선시대의 쓰시마 연구는 역사적 측면에서 쓰시마와 왜구를 관련지어 연구한 김일환(2012), 한문종(1997), 이영(2013b) 등의 연구가 있고, 왜관에서의 쓰시마인의 활동에 대해 연구한 심민정(2013a), 정성일(2017), 김동철(2010)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이루어졌던 조선통신사와 쓰시마를 관련지어 조선통신사의 행렬과정에서 이루어진 연행(演行)을 통한 문화교류·전파를 설명한 강혜선(2017)의 연구, 통신사와 대일외교의 특징을 쓰시마와 연관지어 설명한 장순순(2017)의 연구, 조선통신사와 쓰시마의 관계를 쓰시마의 역할과 관련지어 전반적으로 분석한 김인현(2017)의 연구 등 교류사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연구 외에도 현대적 관점에서 한반도와 쓰시마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교류를 분석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인의 쓰시마관광을 역사유적관광의 정체성형성과 관련해 분석한 이종열·이형룡(2017)의 연구와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편익과 시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정선자(2012)의 연구처럼 최근 급증하는 관광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고,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에 관한 최승희(2012)의 연구처럼 문화적 교류에 집중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토 관련 이슈가 논란이 되었던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쓰시마의 영토권에 관한 김용훈(2010, 2012)의 연구나, 이승만 기의 쓰시마 반환 운동을 다룬 김상훈(2011)의 연구처럼 영토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볼 때, 쓰시마는 위치에 따른 지리적 특성에 의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국제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세기 이후의 연구는 영토적 분쟁과 관광,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교류와 갈등이라는 상반된 측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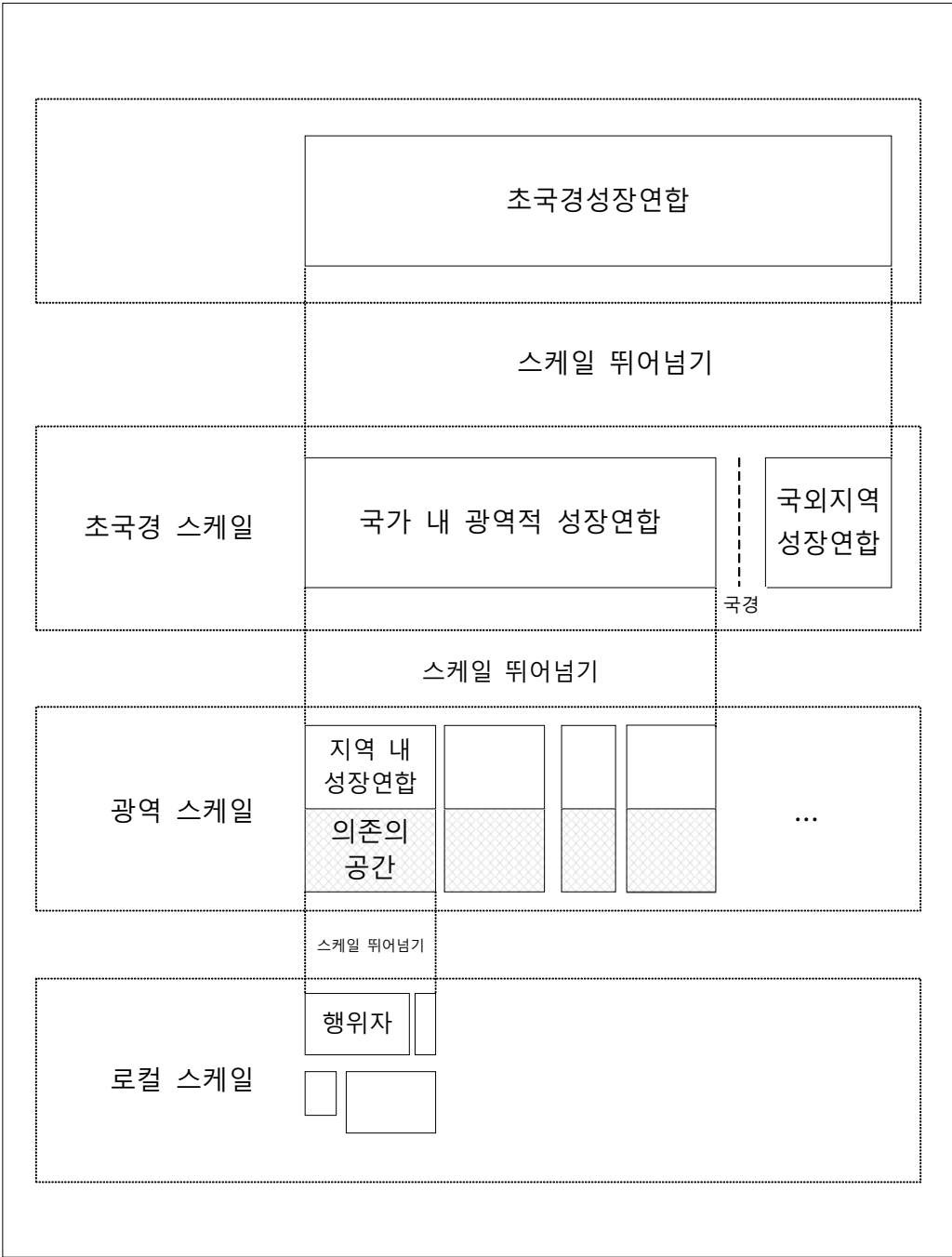
초국경교류와 연합에 대해 로컬스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일협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 연구로 손기섭(2016)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한일 간 교류에서 ‘부산시’의 주체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일본의 지자체와 더불어 협력하여 여러 행사를 주최함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 대 국가의 측면에서는 독도 문제 및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반발로 인해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적 국면에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관계에 교류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그는 연구의 말미에 부산이 한일경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물류와 교역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찬 전망을 제시한다. 위 논문은 부산이라는 단위로 논의의 초점이 되는 권역적 범위, 즉 스케일을 끌어내렸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컬스케일에서 부산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종합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초국경교류의 특정 사례에 대해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로컬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개별사례로서 부산과 쓰시마의 연결에 초점을 맞춰 로컬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쓰시마는 최근 급속도로 역할이 강화되며 주목받고 있는 국경의 섬으로, 인접한 한국의 대도시 부산과 연합하여 교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구체적 사례로서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등재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국가적 스케일과 별개로 작동하는 로컬스케일의 경계성을 분석한다.

## 4.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의 단일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한다. 그동안 동아시아권역에서 초국경교류에 관한 접근은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국가적 교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두 지역 사이의 연대와 결합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성장연합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국가 내부의 특정 지역에 대한 국지적 의존성을 갖는 행위자들은 ‘의존의 공간’을 공간적 기반으로 장소 고착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지역 기반의 이해관계를 형성한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지역 내의 성장연합을 형성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뿌리내린 의존의 공간의 국지적 차별성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스케일을 뛰어넘는 확장적 연대와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다른 공간 스케일에 있는 행위자들, 혹은 권력을 동원하려 한다. 이렇게 외부지역으로 스케일을 확장하여 행위자들과 연합하는 전략을 ‘스케일 뛰어넘기’라고 할 수 있다. ‘스케일 뛰어넘기’의 과정은 지역의 성장연합이 결합하여 국가 내 광역적 성장연합을 형성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국경을 넘어 확장된 공간적 스케일의 행위자들과의 연합하여 초국적 스케일의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행위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초국경성장연합이라는 연대의 공간을 바탕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초국경 협력을 만들어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스케일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시정치 모형을 통해 초국경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것을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연구 분석틀 도식화 모형도

## 제 3 장 쓰시마와 한일경계의 역사지리적 맥락

쓰시마(對馬)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가는 정박지라는 뜻에서 나루를 뜻하는 ‘津(쓰; tsu)’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 열도의 입장에서 한반도 세력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對(상대하다; 대)’를 써서 對馬島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Tsuruta, 2006). 어느 쪽이든 쓰시마는 그 섬의 명칭에서부터 한국과의 관련, 혹은 연결성이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시마의 역사지리적 맥락을 살펴보는 과정은 쓰시마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어떤 상호관계를 형성, 혹은 유지해왔는지에 주목한다. 이 장에서는 쓰시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역사지리적 맥락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를 쓰시마 중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쓰시마와 한반도, 일본열도 사이에서 교류와 접촉이 이어진 관계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쓰시마를 읽어내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맥락을 짚어낸다.

### 1. 근대이전

#### 1) 가교적 역할의 태동

한반도에서 쓰시마를 거쳐 일본열도로 향하는 전파의 흐름은 상당히 오랜 과거로부터 존재하였다. 고고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쓰시마는 신석기시대<sup>13)</sup>에 이미 한반도의 선사문물을 일본열도에 전파하는 해상통로의 중간거점으로서 대륙과 한반도문화의 유입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

13) 일본사의 시대구분 상으로 조몽(繩文)시대와 야요이(彌生)시대를 말한다.

것으로 추정된다(정효운, 2010). 한반도 남동부의 가야와 큐슈 북부의 큐슈 왜(九州倭)의 성장은, 가운데 위치한 쓰시마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한반도에서 쓰시마를 거쳐 큐슈로 이어지는 해상네트워크에서 쓰시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 문화, 군사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중계지로 발전해 나갔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두 세력 중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중간지점으로 존재하던 쓰시마는 7세기에 이르러 백제의 멸망과 때를 같이해서 일본열도의 중앙정권(야마토 정권; 大和)에 복속되었다(정효운, 2010). 왜의 세력권에 속하게 되면서 쓰시마는 대륙 및 한반도 세력으로부터 일본열도의 최전방을 방위하는 국방상의 요충지이자(김경임, 2015; p.156), 신라지역의 상황을 포착해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창구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이근우, 2010).<sup>14)</sup> 이후 북큐슈에서 당으로 향하는 직항로가 열려 견당사가 쓰시마를 경유하지 않게 되고, 또 8세기 이후에는 일본열도의 중앙정부가 쇄국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쓰시마는 쇠퇴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쓰시마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고, 궁핍으로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5)</sup> 이처럼 쓰시마는 근대이전부터 그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해상통로의 중간거점으로서 두 지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 2) 한반도와 왜구, 그리고 쓰시마

한반도의 역사에 쓰시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 말 동아시아에 ‘왜구(倭寇)’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흔히 ‘일본인 해적집단’으로 알려진 왜구는 여말선초기에 등장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 진출하여 해안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다. 왜구는 고려

14) 이 시기 축조되어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가네다성(金田城)은 큐슈를 방위하는 감시초소로 활용되었던 역사를 보여준다(연민수, 2003; 353p).

15) 툰안(天安) 원년인 857년에 일어난 민란은 도분사(島分寺)를 소실시킬만큼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 교체에도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등<sup>16)</sup>, 13-14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 대한 왜구침입의 시초는 1350년, 경인년의 대규모 침공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7)</sup> 100여 척의 선단으로 꾸려진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인년 왜구’는 한반도 남부를 침략해 경상도 내륙까지 침투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왜구는 쓰시마를 근거지로 하여 한반도 해안에 지속적으로 출몰하였다.

오늘날, 왜구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그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sup>18)</sup> 최근에는 등장한 가설은 왜구를 일본 내부의 정치적 모순이나 갈등상황이 표출되는 형태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영,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쓰시마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동이 왜구라는 형태로 고려와 중국 등 외부로 표출되는 창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쓰시마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한 ‘왜구의 본거지’ 이기보다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적 세력과 연관되어 복잡한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경계지역’ 이었던 것이다. 왜구의 정의에 관한 논란과 별개로 쓰시마가 왜구의 활동반경의 거점, 혹은 중심으로 위치하였던 사실은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쓰시마는 고려

---

16) 고려멸망에 관해 왜구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이영, 2010), 첫째, 연해지역의 농경을 포기하고 백성을 내륙으로 이전시키면서, 백성의 유망과 기근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국가재정수입이 격감하였다. 둘째, 조운제도와 군사제도 등 제반 행정체제에 큰 혼란을 일으켜 끊임 없는 개혁이 이루어져 국가기반이 약해졌다. 셋째, 장수들을 지방 현지에 장기간 주둔하게 해 공병(公兵)이 사병(私兵)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7)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 공통으로 기술되어 있다.

18) 왜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의해 식량난을 겪는 쓰시마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소규모 해적집단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구를 ‘일본인’ 해적이 아닌, 중국인과 고려(조선)인까지 포함하는 다민족·복합적 존재로 해석하는 시각(Hashimoto, 2005)이 제기되었다. 또한, 왜구가 큐슈지역에서 패권다툼을 벌이던 지방 세력이 병량미가 부족하거나 재정적 필요에 따라 물자 조달을 위해 한반도 남부의 해안에 출몰한 정치적 해상세력(corsair)이었다는 논의(이영, 2013) 또한 존재한다.

혹은 조선의 연해 및 도서 지역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한반도의 지리나 지형, 내부사정에 상당히 밝았기 때문에 섬 내외부의 필요에 의한 한반도로의 진출 및 침략이 용이했던 것이다(이근우, 2010).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왜구의 문제는 조선과 쓰시마를 이어주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왜구에 대해 골머리를 앓던 조선 정부는 왜인(倭人)통제에 관한 역할을 당시 쓰시마의 지배세력이었던 소씨(宗氏)가문에 위임하면서 조선과의 교역에서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교환하였다. 세종은 쓰시마도주를 왜인도항자와 통교자의 통제에 활용하여 왜인을 관리하는 제도적 조직을 확립하였다. 당시 쓰시마 내부의 지배력이 확고하지 않았던 소씨는 이와 같은 조선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이를 섬 내부의 여타 세력을 누르고 지배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였다. 쓰시마와의 상호협약의 조건으로 조선은 내이포(乃而浦, 진해. 제포薺浦로 불리기도 함), 염포(鹽浦, 울산), 부산포(釜山浦)의 삼포를 개방하여 교역과 외교를 수행하는 포소와 일본인 전용 거주지역인 왜관을 설치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일본 무역 및 외교는 왜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막부의 쇼군뿐 아니라 관료, 유력 다이묘(大名), 서국지역의 호족 등 다양한 대상과 통교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들로부터의 통교자가 모두 쓰시마를 경유하는 점에 착안해 쓰시마를 중간매개로 하여 통교체제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하우봉, 2010). 쓰시마가 조선과 왜 사이에서 외교적 대리 역할을 맡으면서 조선정부는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할 일 없이 쓰시마에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었다.<sup>19)</sup>

삼포의 개방은 쓰시마의 정치·경제적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에서 왜인을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진상물을 가져와 조선조정 혹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공무집단(사송왜인), 물고기나 소금을 가져와 파는 영세 상인집단(흥리왜인), 가족과 함께 왜관에 상주하여 교역업무에 종사

---

19) 1590년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가 150년 만에 쓰시마 이외의 일본 땅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 잘 알려진 유력 다이묘들이 이미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했다(하우봉, 2010).



하는 관리와 어업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집단(항거왜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송왜인에게 허용된 연간 최소 300척의 세건선(무역선박) 중 절반이 쓰시마에 할당되었다. 이들은 외교사절의 자격을 인정받으며 조선과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계무역의 루트를 형성하였다(김경임, p227). 또한, 대다수가 쓰시마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흥리왜인과 항거왜인은 초기 제한되었던 60명의 인원수에서 세종 대에 2000명, 연산군 대에 이르러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절과 사당까지 갖춘 ‘왜인촌’을 형성하였다. 조선정부는 왜관의 통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쓰시마에 자치를 맡겼는데, 쓰시마 도주가 주민세와 무역에 관한 세를 징수하였다. 또한, 쓰시마인은 왜관에서 자체적인 군사력도 갖추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일종의 예외공간이었다. 쓰시마 도주 소씨는 조선과 직접적 교역으로 얻는 이익과 더불어 교역에 대한 징세를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였고, 무역선에 대해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왜관은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하였고, 쓰시마도 수익을 통해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 3) 위기와 숙명적 외줄타기: 삼포왜란과 임진왜란

조선과 왜 사이에 왜관을 매개로 안정된 교역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 중간거점으로서 쓰시마가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 삼포왜란과 임진왜란이라는 섬의 운명을 좌우할 국제적 충돌을 연이어 겪으며 쓰시마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다. 1510년, 병선 100여 척과 무장왜인 4-5천명이 삼포의 왜관에 상주하는 왜인들과 합세하여 부산포와 제포를 공격해 함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속적으로 커지는 왜관의 규모를 제한·통제하고자 했던 조선정부에 대한 반발과 조선의 긴축재정에 의해 줄어든 지원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들은 열흘 동안 부산을 점령하고

더 나은 교역조건과 왜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결국 조선군에 의해 진압이 이루어졌고, 왜관에 머물렀던 왜인 조직들과 쓰시마의 정규군이 합동으로 벌인 조선에 대한 쓰시마의 전면적인 공격이었기에 왜관은 모두 폐쇄되었고 모든 교역이 중지되었다. 삼포왜란 이후 쓰시마는 교역의 이익이 사라짐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역의 재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다시 왜구가 범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역의 재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역의 재개와 별개로 왜관의 재설치는 허가되지 않았고, 무역도 이전에 비해 대폭 삭감된 제한적 수준만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제제는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 쓰시마가 조선과의 관계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쓰시마 내에서 여러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던 교역이 쓰시마 도주의 통제 아래로 포섭되었고, 다른 일본열도의 영주 및 장군에게 할당되었던 물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쓰시마가 교역권을 확보하였다. 쓰시마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본래의 무역수준을 회복하였음은 물론, 계속해서 확대해나갔다.

삼포왜란(1512년) 이후 쓰시마 소씨는 조선과의 교역 관계를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쓰시마와 조선 사이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출병’, 즉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 쓰시마에 있어 조선과의 전쟁은 도민의 생활 기반이었고, 소씨에게도 가신단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던 조선과의 무역의 단절을 의미했다. 쓰시마는 경제적 생존과 내부 통제수단을 상실할 위기에서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sup>20)</sup> 하지만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쓰시마의 차출병력은 제1군에 배치되어 최선봉에서 외교

---

20) 당초 도요토미히데요시에 의해 조선공격을 지시 받았을 때에도 ‘조선은 쓰시마와 한편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저지하기도 하였다. 히데요시 측근들과 관계를 강화하며 전쟁의 저지를 노력했고,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 통신사를 파견해 사전에 전쟁의 위협을 조선에 알리고자 했다. 1590년, 왜의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파견된 통신사를 복속사절로 속여 도요토미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와 협상의 역할을 맡으며 전쟁을 수행한다(정장식, 2005).

전란은 쓰시마에도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다. 도내 인구수를 고려할 때 상당 규모의 병력이 징집되었고, 식량, 선박, 물자 등이 총동원되어 섬의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정장식, 2005).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쓰시마는 전쟁 직후 서둘러 조선과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새롭게 정권을 확립한 도쿠가와막부의 의중이기도 했다.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가 일본열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쓰시마는 도쿠가와에 맞서는 서군으로 참전한다. 전투 후 축출된 여타 서군 영주들과 달리 쓰시마 도주 소요시토시(宗義智)는 도쿠가와막부로부터 쓰시마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고, 조선과의 관계회복이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조선에 관한 것은 쓰시마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인식이 막부에 있었고, 쓰시마번(藩)은 막부의 요구에 따라 조선으로부터 사신을 요청해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며 외교적으로 실제적 성과를 쌓아왔다. 이처럼 조선과의 오랜 상호작용의 역사와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왔던 쓰시마이기에 도쿠가와막부의 입장에서조차 숙청하기보다 대조선 외교에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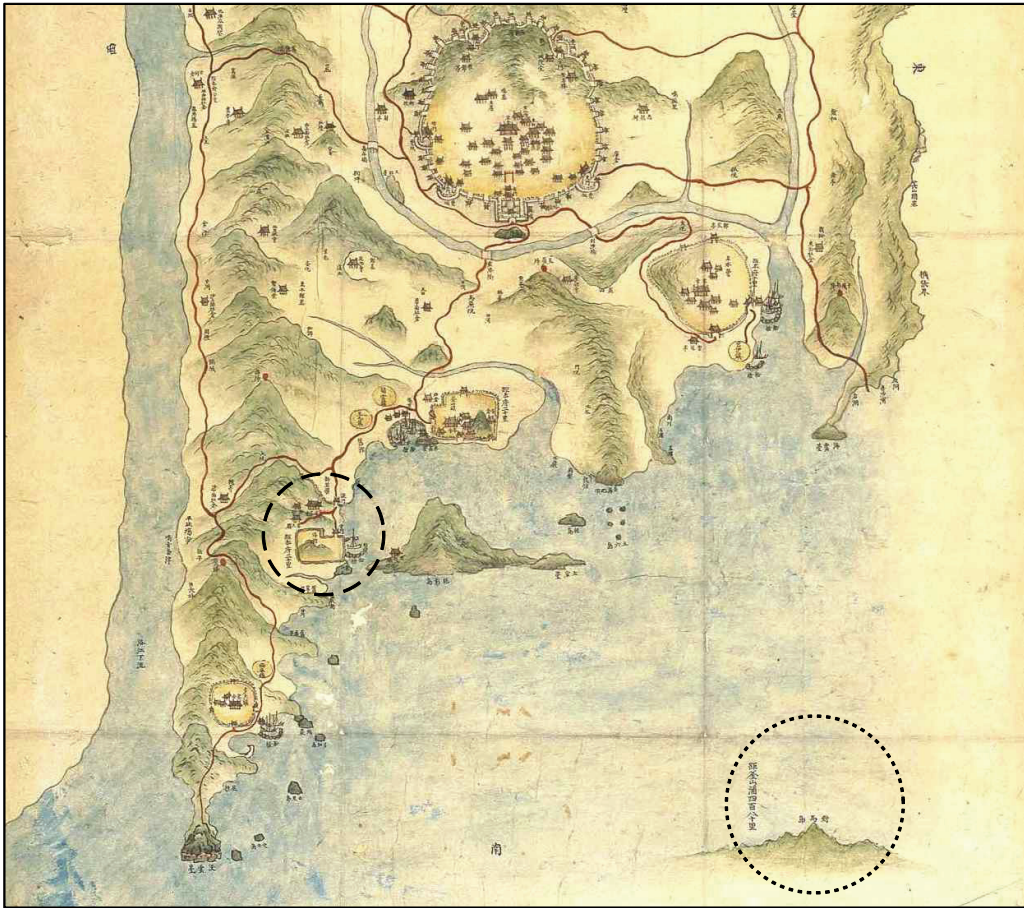
#### 4) 성신교린의 시기, 왜관의 교류와 조선통신사

임진왜란 이후 쓰시마는 내부적으로 피폐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였고, 외부로는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과의 교역 재개는 쓰시마에게 섬 내부의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적 역학관계의 측면에서도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Tsuruta, 2006). 이런 상황에 의해 쓰시마는 국교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양국을 오가는 국서가 서로를 자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자 이를 무마하고자 국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쓰시마가 국서를 바꿔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북방의 여진족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서 남쪽 경계의 안정화를 위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정장식, 2005). 막부 또한 쓰시마에서 내분이 일어나 국서의 위조에 대한 고발을 접하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지속적으로 소씨가문에 쓰시마의 통치와 더불어 조선에 대한 외교를 위임하였다. 이는 막부 또한 조선에 대한 통교역할이 쓰시마라는 단일주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정하고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담’은 쓰시마번이 자신의 존재의의나 역할을 고민하는 가운데 도달한 결과로서의 표현이었다(Tsuruta, 2006). 따라서 쓰시마는 스스로의 존재를 막부에 각인시키기 위해 조선과의 소통 및 원활한 외교관계를 유지시키려 노력하였다. 막부는 여타 번(藩)과는 예외적으로 쓰시마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조선전담’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보상하였다. 이처럼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막부 양쪽에서 서로의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했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생존하였다.

한편, 조선이 도쿠가와막부의 국교 재개를 받아들이고 왜관의 설치를 허락하면서 1678년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0만평 부지에 왜관이 건설된다(Ueshima, 2012).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던 조선이지만, 쓰시마를 일본의 다른 부분과 별개로 생각하는 이전의 전통을 유지하여 쓰시마인으로 한정해 왜관에서의 활동을 허가하였다(Tsuruta, 2006). 왜관은 다시 경제와 정치의 중계지로 역할하며 발전하게 된다. 조선 후기 대일외교체제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있어, 표면적으로는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의 대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조참판과 쓰시마도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정장식, 2005; 153). 막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구는 에도에 있지 않고, 왜관에서 전담하였고, 이후 조-일간 통상무역과 실무적인 현안처리는 개항 이전까지 초량왜관에서 처리되었다(하우봉, 2010;173).

외교적 교류와 더불어 이 시기는 쓰시마인에 의한 왜관에서 무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 막부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쓰시마는 이 역할을 중간에서 맡아 수행하는 대신, 그 대가적



[그림 3-1] 동래부지도에 나타난 왜관(왼쪽 점선 내)와 쓰시마(오른쪽 아래)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 지방지도(규10512) 중 동래부지도 중 일부

이익으로 교역에 대한 인정을 획득하였다(Tsuruta, 2006).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조공무역과 공무역, 사무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왜관에 체류하는 쓰시마인을 통한 역관, 혹은 인근 주민들의 밀무역 또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김경임, 2015; 274). 쓰시마의 통치세력인 소씨가문에게 ‘조선무역의 변영화’는 대를 가업으로 전해지는 중요한 사업이었다(다시로, 2005). 이들은 공무역에서 금, 은, 동철과 같은 광산물과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한 유황, 후추와 같은 진상품을 가져와 판매하였고, 조선은 면포, 미곡, 인삼, 표피를 하사품으로 답하였다. 사무역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견사와 비단을 일본에 수출했다(Tsuruta, 2006). 쓰시마는 이것을 쌀과 인삼으로 바꾸어 일본으로 가져가 다시

판매하였다(정성일, 2010). 쓰시마를 통해 수입된 교역품은 일본 내의 쓰시마번 출장소를 통해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까지 연결되어 판매되었다. 왜관은 상주 인원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인원을 합쳐 500~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상당한 규모의 생활공간이었다. 부산은 본래 동평현에 소속된 부곡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쓰시마와 관계를 통해 왜관이 번성하여 도시가 점차 성장해나갔다(Tsuruta, 2006).

왜관을 통한 교역이 번창했던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서 대일 관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또 하나의 매개가 조선통신사의 왕래였다. 임진왜란 직후 1607년, 국교를 수립하며 ‘회답 겸 쇄신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한 사절단은 회차를 거듭하면서 막부 장군의 교체에 맞춰 즉위를 축하하는 성격으로 변화해 고착된다. 통신사는 당대 최고의 문인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여 300명에서 500명의 규모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이들은 한양에서 에도(도쿄)를 경유해 닛코에 이르기까지 2,000km의 거리를 10~12개월에 걸쳐 왕래하며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신사는 250년간 12차례 파견되었는데, 한 차례의 무력충돌도 없었던 이 시기를 바탕으로 통신사는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한문중, 2014).

통신사 사행이 부산을 떠나면서부터 이들을 전담하여 안내하는 역할은 쓰시마가 도맡아 수행하였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일본 땅이 쓰시마였고, 쓰시마는 통신사행렬에 관한 초청에서부터 접대,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담당하였다(김경임, 2015; 260). 조선전기, 사행이 지나가는 지방의 지방 세력에게 호송을 요청했던 관례와 달리, 조선후기에는 쓰시마가 통신사의 수행에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 쓰시마는 통신사와 같은 대일 사행에 관여하면서 조선정부에 ‘조선의 번병’임을 강조하며 무역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막부에게도 대조선 외교의 전담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고 존재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선통신사를 이용하였다.

## 2. 근현대와 오늘날

### 1) 역할의 상실과 단절

왜관과 쓰시마를 통한 조·일 외교는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변화의 바람을 맞는다.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sup>21)</sup>에 따라 쓰시마는 독자적인 지역 세력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일부로 완전히 귀속, 편입되었다. 중앙정부가 조선과의 외교에 직접 나서면서 왜관을 통한 외교 관계 또한 종료되었다. 초량왜관은 외무성에 접수되어 ‘대일본공관’으로 개칭되고, 1879년에 서양식 건축형태의 영사관이 설치되었다(Ueshima, 2012).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왜관 터를 비롯한 부산 일대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왜관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져갔다.<sup>22)</sup> 쓰시마 섬에 대해서도 한-일 경계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섬 전체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의한 요새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차원의 외교 혹은 무역에 의한 왕래가 끊어지면서 외교적 역할을 상실했고, 단절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합병하고 식민지통치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와의 쓰시마 사이를 가로막는 국경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와의 이동과 접촉이 계속해서 있었던 쓰시마지만, 국가적 제약 없이 왕래하는 상황은 처음 맞이하였다. 이는 쓰시마 도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쓰시마 북부지역은 가까운 대도시 부산의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고차중심지로서 부산을 자연

---

21) 메이지유신과 함께 이루어졌던 지방행정제도 개편으로 번(藩)제도를 철폐하고 현(縣)단위로 전국 지방단위가 재편되었다.

22) 1923년에 이미 왜관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어, 왜인이 심은 소나무를 통해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라 할 정도였다(Ueshima, 2012).

스럽게 오가게 되었다.<sup>23)</sup> 또한,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서 쓰시마 및 일본으로 향하는 이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징용 혹은 생계를 위한 이주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쓰시마를 경유하거나 정착하였다. 1925년 쓰시마의 조선인 인구는 1,816명<sup>24)</sup>으로, 이들은 어업과 석탄채굴을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4,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쓰시마에 체류해 있었고, 1955년 해방 이후에도 2385명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國勢調査資料, 1925; Shin, 2016). 반세기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물리적 경계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에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이 이루어졌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강점이 태평양전쟁의 패망과 함께 끝나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다시금 해상에 국경선이 그어졌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식민지시기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1965년, 일본과의 경계성을 분명히 설정한 ‘이승만 라인’이 제기되면서 공고한 장벽이 세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비공식적 스케일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변칙무역’으로 정의되는 밀무역형태의 교역이

---

23) 한반도에 대해 느끼는 가까운 심리적·지리적 거리에 관한 에피소드는 일본의 소설가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1925-30년경, 이즈하라에서는 학교 졸업 후 일할 곳이 없다. 이즈하라 근처의 대도시라고 하면 부산이었다. 부산근교가 쓰시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시 쓰시마 북단의 어촌 사람들이 60키로 건너편의 부산으로 영화 구경을 가서,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또한 찾을 수 있다. “부산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많았고, 철도 회사나 은행 등에 취직하고, 혹은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도 비교적 가볍게 부산의 병원이나 쇼핑을 하러 가기도 했다. 이즈하라에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무렵 겨우 도착했지만, 부산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었다.” (1920년생, 남성, 히타카츠만 출신), (무라카미, 2015) 비록 쓰시마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로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24) 남성인구가 1485명, 여성인구가 331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950년대를 통틀어 쓰시마는 일본 내에서 ‘밀항의 섬’으로 이미지가 형성될 만큼 밀수와 밀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적으로 1959년 9월까지 적발·검거된 밀수사건만 489건에 이르고 관련된 인원만 7백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밝힌 규모의 4분에 1수준에 미치지 않아 전체적인 밀수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부산일보, 1959.9.15.). 이와 같은 ‘변칙무역의 시대’는 오늘날 크게 조명되지 않는 역사이다(무라카미, 2015).

## 2) 관광을 통한 재연결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었던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국가경계는 1964년, 한일협정으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오랜 기간 쉽게 오가지 못하는 장벽과 같은 국가경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래로 쓰시마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관광산업이 성공하면서 관광객을 통한 이동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관련된 문화역사적 유적과 사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쓰시마의 전략이 주요하게 작동하였다. 쓰시마는 섬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통신사와 한-일 교류를 지역적 특성으로 선정하여 개발·홍보하였다. 애초에는 일본의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의 추진이었지만, 한국의 해외관광 자유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한국관광객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고속선의 취항을 계기로, 한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2000년대 이전, 부산과 쓰시마 간에는 일본의 쓰시마국제라인<sup>25)</sup>이 운영하는 30t급 소형여객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운항해 왔었다. 하지만 1999년 최초의 고속선이 취항하였고, 2011년 말, 여러 선사가 취항함에 따라 쓰시마를

---

25) 히타카츠에 위치하는 여객회사로 현재는 대아고속과 한일고속의 일본 현지 대리운항을 맡고 있다. (株)対馬国際ライン)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이처럼 쓰시마를 찾는 관광객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자 쓰시마 내부에서 이에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쓰시마 도민 인구를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수의 한국인 관광객이 단기간에 섬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부 주민들에 의해 불편·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2012년 관음사 불상의 도난사건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적대감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 불상이 일제강점기, 서산 부석사에서 탈취당한 문화재인 것이 밝혀졌고, 한국의 법원에서 불상의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면서 국가적인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식당이나 상점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형태로 오버투어리즘과 반한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관광객에 대한 대우가 알려지면서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뜨거운 국가주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등 쓰시마는 충돌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마에 존재하는 반한감정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과 쓰시마 지역의 해운사에서는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부산항과 히타카츠, 이즈하라를 잇는 항로에 신규 쾌속선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쓰시마와 한국의 관계는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바뀌어나가고 있다.

### 3. 역사지리적 맥락에서 얻는 함의

전술하였듯, 지금까지 쓰시마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를 대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쓰시마를 둘러싼 한일교류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여러 연구성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나열식 서술로 모든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쓰시마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생존해온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에 주목하여 제시하였다. 역사적 변천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쓰시마가 내포하는 경계공간으로서의 지리적 공간성은, 두 세력 사이에서 상반된 역할과 입장을 동시에 내포하고 드러내는 정치·외교적 ‘양속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정효윤, 2010) 것이다. 쓰시마는 시대에 따라 인접한 세력의 역할관계와 영향력의 역동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는 조선과 막부 양쪽에 모두 복속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중적인 종속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한 점에서 드러난다. 이는 쓰시마가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유지를 모색하며 얻은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쓰시마의 경계공간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교류와 충돌이 일어난 공간이다. 따라서 쓰시마의 역사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정리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일관되게 존재하였던 쓰시마의 공간적 특징은 상황에 따라 역할과 수행을 바꿔가며 생존했던 ‘가변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한 쓰시마의 역사적 맥락을 드러낸다. 쓰시마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용해 일본열도의 세력에게 전달하는 문화의 수용지와 발신지를 겸하는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기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시기에는 왜군의 침병, 혹은 최전방으로서 국가방위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국제관계 속에서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경계공간으로서 쓰시마

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쓰시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 사이에서 생존의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의 관광 활성화 등과 같은 이벤트는 급격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쓰시마와 부산지역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역사적 맥락에서 부산과 쓰시마의 연결성은 과거 오랜 역사 속에서 연결과 단절을 계속해왔던 경계공간으로 보는 관점이 더 적절하다. 쓰시마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과 단절이 반복되고, 또 시기에 따라 갈등과 반목이 동시에 있기도 하면서 복합적인 ‘경계의 섬’으로 성질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통해 쓰시마의 경계성을 양속성과 가변성이라는 두 키워드로 포착해내는 과정은 생존을 위한 쓰시마의 숙명, 혹은 필연적 운명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제 4 장 쓰시마 성장정책의 스케일적 분석

###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쓰시마의 성장연합

#### 1) 쓰시마 내부의 위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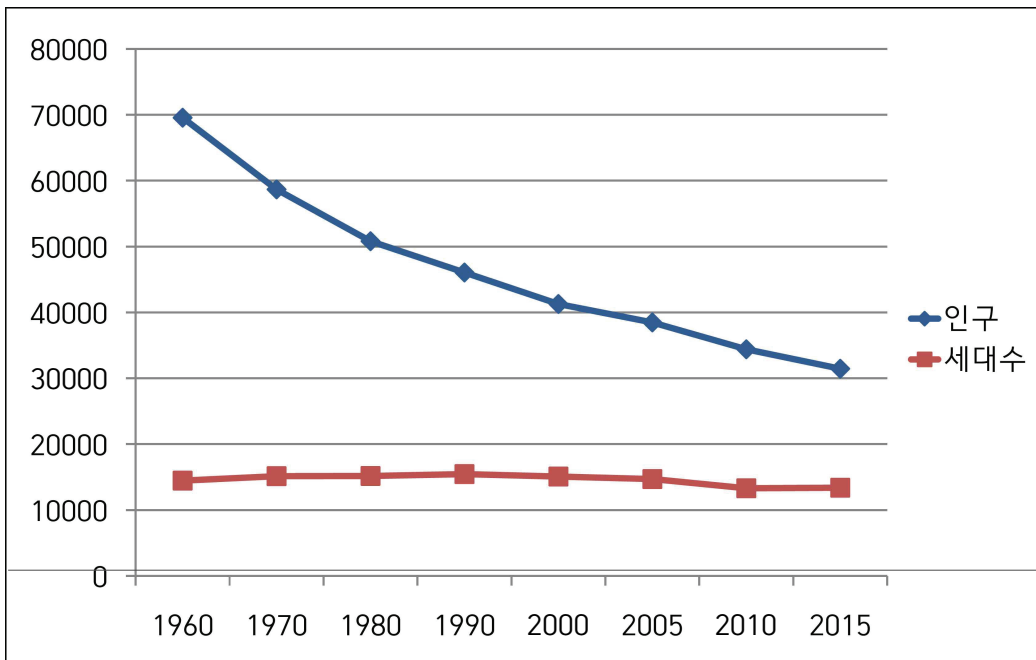
쓰시마 내부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내부 기저 담론으로 중심에서 멀리 동떨어진 섬, 즉 낙도로서의 위기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쓰시마가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겪어왔던, 식량 자급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섬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쓰시마는 농경지로 활용하기 힘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의 어려움은 쓰시마가 지속적으로 섬 외부로 진출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서 쓰시마는 외부와의 관계에 민감하고, 대외의존적인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메이지유신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본 중앙정부에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 쓰시마는 일본 중앙권력의 영향권 아래에 속하지만, 변경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예외공간으로, 일종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존재해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쓰시마가 낮은 귀속의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가야 했던 역사를 말해준다. 쓰시마는 외딴 섬으로서의 역사를 반복해왔고, 교류의 중간에서 외래문물의 ‘체류지’ 나 ‘재생산지’ 가 되지 못하고 단지 외래문물의 ‘경유지’ 였을 뿐이었다(대마미술, 229; 김경임, 2015). 이는 언제나 ‘중심’ 이 아닌 ‘변경’ 으로 위치해왔던 쓰시마의 숙명을 드러낸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변부’ 의 역사를 통해 쓰시마는 항상 스스로의 존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생존의 방향을 모색해왔다.

위와 같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오랜 위기의식에 더해, 오늘날 쓰시마가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위기의식은 인구감소에 의한 섬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는, 보다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추세는 단순히 쓰시마의 지역적 문제뿐 아니라 현대 일본 사회의 전체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은 저성장기에 접어들며 국가적으로 극심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직면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 국가적인 현상으로, 쓰시마가 속한 나가사키현은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경향성의 인구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1] 쓰시마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인구	69,556	58,672	50,810	46,064	41,230	38,481	34,407	31,457
세대수	14,472	15,147	15,176	15,164	15,038	14,710	13,813	13,393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내 통계자료 -2015국세조사- 재구성)



[그림 4-1] 쓰시마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출처:쓰시마시 홈페이지)

쓰시마는 이와 같은 전 국가적 인구위기의 상황에서 촌락이자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이라는 이중적 요인이 겹쳐 이촌향도를 통한 인구유출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섬 전체적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이어졌고, [그림4-1]에서 보듯 1960년 7만 명에 가까웠던 도내 인구는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현재는 3만 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4~5만 명을 기록했던 17~18세기 쓰시마의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1970년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된 ‘과속지역 대책 긴급조치법’이 발효될 당시, 쓰시마시에 속하는 6개 정(町) 모두가 이미 과속지역에 지정될 만큼 급격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Shi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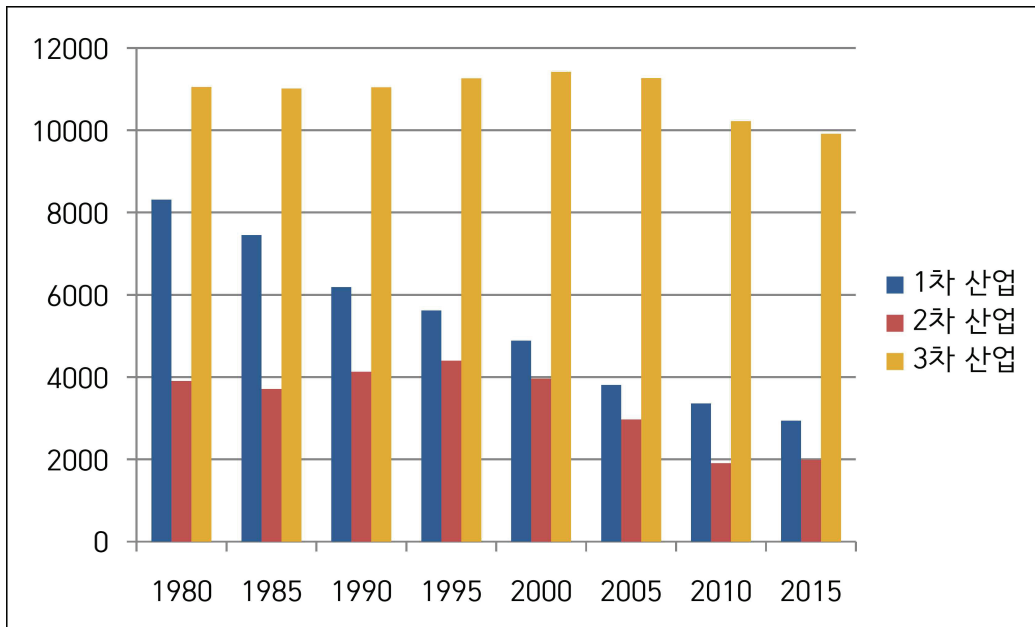
쓰시마의 인구감소는 특히나 젊은 층의 인구가 본토의 도시부로 급격히 유출되는 특징을 갖는데, 이것은 고령화의 진행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저성장기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고, 섬 전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젊은 층 위주의 인구유출은 산업의 부재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인한다.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쓰시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업이 쇠퇴하면서 나타난 산업의 붕괴 현상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쓰시마의 산업은 제1차산업의 비율이 21.2%로 나가사키현 9.1%, 전국 5.1%의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어업이 1차산업의 80.4%를 차지해 섬의 기간산업으로 존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오징어 조업은 나가사키현 전체 어획의 51.2%가 쓰시마에서 이루어진다. 임업 또한, 쓰시마 내부에 위치하는 광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현 전체 생산액의 19.9%를 생산해낸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의 편중은 1차산업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타나고, 섬 자체적으로도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구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아연을 채굴하는 광업소가 번창해 지역 외에서 많은 이주민이 있었지만 1973년 경쟁력의 저하와 카드뮴공해에 의해 폐쇄되었다. 또 1960년대 이래 목재 또는 펄프가공업의 쇠퇴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쓰시마는 1차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

구조와 그 쇠퇴에 의해 오늘날 종사자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쓰시마관광물산협회, 2008; 쓰시마시, 2015).

[표 4-2] 쓰시마시 산업별 인구 구성과 변화

산업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차 사업	8,313	7,454	6,190	5,621	4,832	3,806	3,357	2,944
2차 산업	3,903	3,709	4,131	4,398	3,965	2,971	1,910	1,938
3차 산업	11,054	11,016	11,043	11,263	11,419	11,266	10,223	9,910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내 통계자료-2015국세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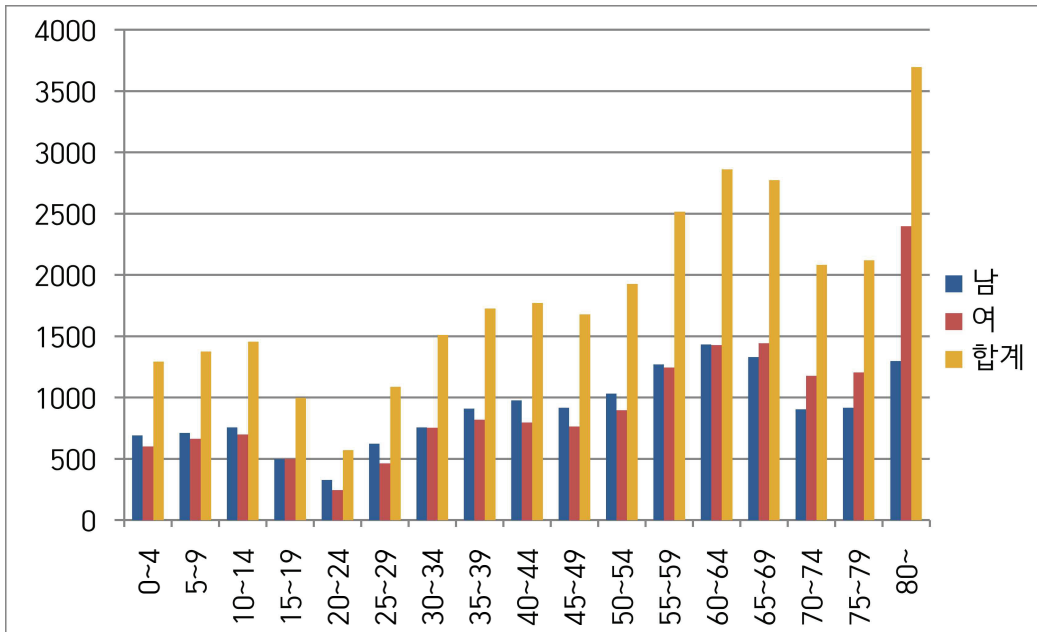
[그림 4-2] 쓰시마시 산업별 인구 구성과 변화

(출처:쓰시마시 홈페이지)

산업적 측면보다 더 강력히 쓰시마의 인구유출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적 요인이다. [그림 4-3]에서 살펴보듯, 쓰시마의 연령별 인구에서 가장 급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간은 중학교에서 대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15~25세 구간 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쓰시마의 특성상, 중학교부터의 중등교육과정과 대학진학을 위해 섬을 떠나는 학령인구의 비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이나 취직이 가구 전체의 이주를 이끌면서, 과거 30년간 50% 이상 감소한 쓰시마의 인구변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4-3] 쓰시마시 연령별 인구분포 그래프

(출처:쓰시마시 홈페이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와 교육적 여건에 의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은 섬의 고령화와 공도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섬 자체의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쓰시마시는 물론, 쓰시마시가 속한 나가사키현 또한 쓰시마의 인구감소에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국경지역에 위치한 섬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인국경리도법’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2) 성장연합의 결성과 ‘교류의 섬’ 담론의 등장

여기서는 쓰시마 내 지역 행위자들의 연합과 ‘교류의 섬’이라는 담론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것은 앞의 3장에서 언급했던, 이즈하라미나토마츠리 축제와 통신사행렬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포착해 낼 수 있다. ‘이즈하라 미나토마츠리(항구축제)’는 1960년대 중반, 이즈하라쵸(町)의 상공회와 관광협회에 의해 개최되기 시작해 쵸(町)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무라카미, 2015). 축제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지역의 방문객을 환영하고 함께 즐기기 위한 지역 내부의 행사로, 주민들이 무사의 의상을 착용하고 벌이는 가장행렬이 중심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전야제로 펼쳐지는 무용단의 시내 행렬과 소요시자네<sup>26)</sup>(宗義真:1639-1702)의 추모식, 어선과 차량의 퍼레이드 등 행사가 진행되었고, 불꽃놀이로 마무리되는 지역 기반의 축제였다. 그러던 축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80년, 지역 행위자들에 의해 미나토마츠리에 ‘통신사행렬’이 추가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1970년대, 쓰시마의 주력산업이었던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쓰시마의 행위자들이 새롭게 관광의 산업화에 주목하면서 시작된 시도였다. 1972년 쓰시마와 후쿠오카 사이를 왕래하는 ‘페리쓰시마’가 취항하고, 75년에는 공항이 완성되면서 교통인프라가 완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1977년, 후쿠오카지구 관광개발추진회의’ 관계자들이 쓰시마를 방문하여 쓰시마를 비롯한 후쿠오카 인근 지역들을 엮는 이른바 ‘야마타이코쿠(邪馬台國) 관광 루트’ 구상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설립된 ‘쓰시마도 관광협회’와 협의를 통해 관광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쓰시마신문’에 소개되는 등 관민을 막론하고 관광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국이 보이는 섬’, ‘자연과 문화의 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이 관광마케팅의 전면에 등장한 것 또한 이때의 일이다(무라카미, 2015).

쓰시마의 행위자들은 통신사행렬이 이즈하라 미나토마츠리에 메인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80년대 이후, ‘국경지대’에 위치한 ‘경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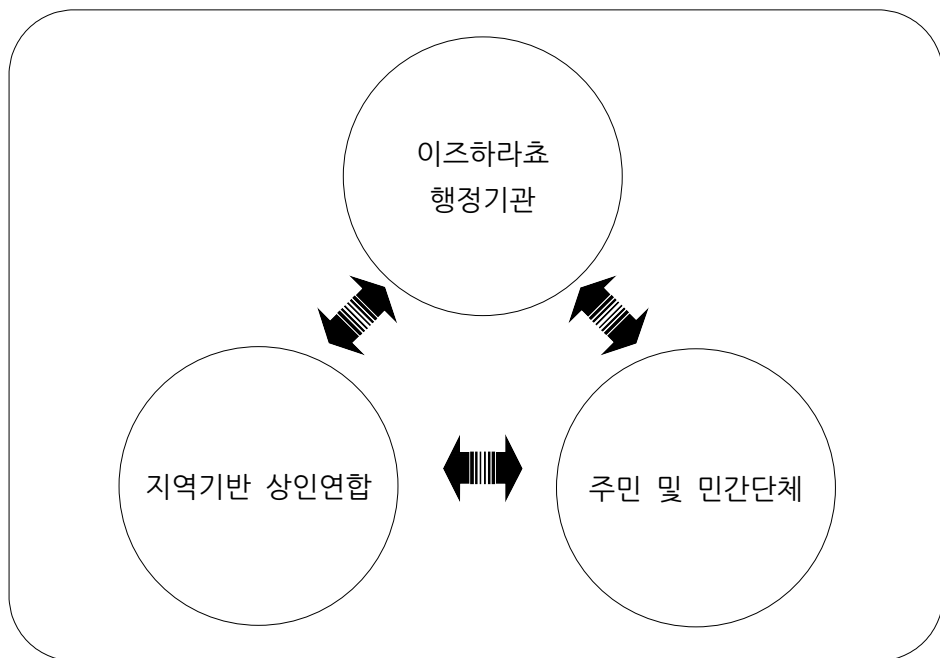
---

26) 쓰시마 후추 번(對馬府中藩)의 3대 번주(藩主)로, 17세기 중·후반 쓰시마의 전성기를 이룩한다.

간'이라는 이미지를 구성해 섬의 차별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즈하라초에서 '통신사행렬 진흥회'가 결성되고, 통신사행렬은 마츠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통신사행렬을 처음 제안해 시작했던 것은 이즈하라초 내에서 의료품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쇼노 고자부로(庄野晁三朗)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우연히 재일한국인으로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던 신기수의 다큐멘터리영화를 접하고 쓰시마와 통신사에 얽힌 역사적 서사에 감명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역 행정기관장과 상공회 회장을 설득하여 통신사행렬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신사행렬에 관한 의사결정과 추진은 이즈하라초의 상공회와 행정기관, 관광협회를 비롯한 관련 민간단체가 합류하여 조직된 '미나토마츠리 진흥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더불어 통신사행렬을 담당하는 '조선통신사행렬진흥회'와 각종 지원과 연락·조정을 담당하는 현지행정기관이 협력하였다. 조선통신사행렬진흥회는 여관조합과 특산품조합 등 각종 단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쓰시마 내부 상업 종사자들의 연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합은 쓰시마에 국지적 의존성을 갖는 도내 행위자들이 연합한 총체로 파악할 수 있다. 쓰시마라는 섬 지역에 고착화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의존의 공간'의 특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하여 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관광에 주목한 것이라기보다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시도였다(Abiru, 2015).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한국' 이미지의 등장과 강화는 이국정서를 표출함에 따라 여타 관광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후쿠오카를 경유해 쓰시마를 방문하는 일본 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무라카미, 2015). 실제로 통신사행렬 행사가 만들어진 초기, 복장과 행렬의 고증을 위해 한국 측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 한국관광객에 대한 유치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경색되어 있었고, 한국의 국외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쓰시마 내부의 인구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쓰시마 내부행위자들이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합을 결성한 것이다. 이들은 쓰시마라는 공간에 국지화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시의 세수에 의존하는 시 정부, 지역 상권에 기반을 두는 요식업과 숙박업, 소매업 등 상업 종사자들과 같은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쓰시마라는 지역에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소고착적인 특성이 있었다. 이들에게 쓰시마의 지역 활성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따라서 섬의 경제부흥을 목표로 관광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관광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쓰시마의 성장연합은 관광객을 유인할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지역 차원에서 존재했던 축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결국, 미나토마츠리의 성격이 변화하고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쓰시마의 성장연합이 축제를 매개로 ‘한국과의 교류’ 라는 테마를 선정해 관광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4] 쓰시마 내 성장연합 이즈하라마츠리 실행위원회의 구성

### 3) 성장연합의 지역스케일 뛰어넘기

#### : 일본 내 광역스케일의 성장연합 형성 - NPO연지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쓰시마의 성장연합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더 큰 스케일의 행위자들, 혹은 성장연합과 연합하는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해 확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쓰시마에서 형성된 지역의 성장연합이 지역의 스케일을 뛰어넘어, 일본 내 다른 지역들과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광역적 성장연합의 형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NPO조선통신사연지연연합회’의 형성과 활동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NPO조선통신사연지연<sup>27)</sup>연합회(이하 연지연)’는 1995년, 과거 조선통신사가 거쳤던 지역들의 연합으로 조직되었다. 연지연(緣地連)으로 불리는 이 단체는 일본 각지에 남아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역사자료를 연구하고, 관련된 진흥사업을 통해 광역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지연 홈페이지, 2018). 연지연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현 이사장이기도 한 마즈바라카즈유키(松原一征)는 쓰시마 출신으로 후쿠오카와 쓰시마, 부산을 연결하는 해운회사 (주)큐슈해운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처음 연지연의 설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1990년 5월,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당시, 쓰시마와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sup>28)29)</sup>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접하면서이다.

---

27) 연지(緣地)는 ‘이어진 땅들’이라는 뜻으로 과거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출발하여 일본 에도(도쿄)까지 가는 여정에서 거쳤던 지역들을 의미한다.

28) 쓰시마에서 태어나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을 살며 쓰시마에서 외교 담당 관리로 오래 활동하였다.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귈다’는 문구로 잘 알려져 있다(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2003)

29) “과거 아메노모리 호슈 선생의 외교 철학인 ‘성신교린’(誠信交隣)처럼 한국과 일본은 신의와 성실로 사귀어야 한다”(한겨레21, 2016.1.30.)는 이 발언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었고, 쓰시마는 즉각 축제에서의 통신사행렬에 아메노모리호슈의 역을 추가하면서 대응하였다(무라카미, 2015)

쓰시마에서는 약 40년 전부터 조선통신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노태우 한국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메노모리호슈에 관한 발언 한 것을 듣고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략)… 노 대통령의 연설은 한 마디로 ‘기쁜 충격’이었죠. 쓰시마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길로 쓰시마 시청에 연락을 했고, 뜻을 모아서 그해 7월 아메노모리 호슈에서 탄 ‘호슈회’를 만들었습니다. 쓰시마 향토사학자인 나가도메 히사에 선생님께 초대 회장을 부탁드렸고요. 일본 내에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 50~60곳 정도 있는데 쓰시마부터 시작해서 조선통신사 교류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연고지끼리 손을 잡고 지역을 부흥시켜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마츠바라 NPO연지연 대표이사 인터뷰(부산문화재단, 2018).

위 인터뷰에서 살펴보면, 그는 쓰시마시와 협조하여 조선통신사 연계를 규합하는 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당시 쓰시마시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선통신사가 왕래하였던 이키,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카미노세키, 후쿠야마, 우시마도, 오사카, 등을 비롯해 도쿄까지 일본 각지를 5년간 돌아다니며 연대를 형성하였고(동아일보, 2014. 09. 13.), 협의회 결성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연지연은 조선통신사라는 한일친선과 우호를 상징하는 역사적 자산,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성신교린<sup>30)</sup>’ 정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연지연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통해 21세기의 ‘새롭게 열어나가는 한일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Abiru, 2015).

연지연은 그 설립에서부터 쓰시마시와 쓰시마 출신의 행위자(마츠바라 이사장)에 의해 추진되었듯, 쓰시마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적 조직이다. 사무국의 사무실이 쓰시마 시청 내에 위치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업무를 쓰시마 시청 직원이 겸하여 담당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쓰시마 시 정부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쓰시마시장이 연지연연합회의 회장을 겸임하기도 하고, 연지연의 활동에는 항상 쓰시마시로부터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담조사#면담5)는 점에서 연지연은 쓰시마시와 매우 깊은 관련성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

30) 믿음으로 서로를 속이거나 다투지 않고, 진실로 사귀는 것

하며 활동하는 비영리조직(NPO)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연지연은 19개의 자치체회원과 70개 민간단체회원, 그리고 104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체회원은 쓰시마를 비롯해 넷코, 시즈오카, 교토, 시모노세키 등 자치체의 문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단체회원의 경우, 조선통신사행렬진흥회, 조선통신사쓰시마번영사업회와 같이 쓰시마 내부의 조직부터 일본코리아협회-오사카지부, 재일본대한민국단의 일본 각지의 지부 등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회원까지 속하는 큰 규모의 광역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연지연 홈페이지). 연지연의 주요 활동내용은 1)조선통신사에 관련한 각종 이벤트의 계획 및 개최, 2)조선통신사에 관한 사료·사적의 조사,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 3)연지 사이에 정보교환 및 문화경제교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연지연 홈페이지, 2018). 연지연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로는 ‘조선통신사 관련 마을 전국교류회’를 각 연지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는 지역들의 공동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 2. 성장연합의 국가스케일 뛰어넘기

: 쓰시마 성장연합의 초국적스케일 확장 - 초국경교류와 관광산업

### 1) 한국과의 연결과 초국경교류의 시작

쓰시마의 성장연합은 지역의 범위를 뛰어넘어 섬 외부의 다른 지역과의 연합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해외의 지역과 연합하는, 초국적 스케일로 확장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쓰시마의 성장연합이 초국적 스케일로 뛰어넘기가 일어난 상황적 맥락과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쓰시마는 지역 내부의 성장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쓰시마에서 지역 기반의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이 인근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국경의 섬’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축제에 통신사행렬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한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내국인 관광객의 유치로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국경의 섬’이라는 테마가 예상치 못하게 한국 학계와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조선통신사의 행렬이 축제에서 주요행사로 진행되는 사실이 한국의 큰 관심을 끌었고, 쓰시마의 행위자들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국과 관련성을 강화해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때마침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sup>31)</sup>가 이루어졌고, 쓰시마로서는 한국 제2의 대도시로 관광수요의 잠재력이 컸던 부산지역과의 연결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면담조사#면담4).

한국과의 연결이 강조되면서 이즈하라항 축제의 기획에 관여하는 쓰시마의 성장연합은 통신사행렬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대응하여 행렬의 고층에 더욱 공을 들이고, 축제의 테마를 점차 한국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갔다. 이즈하라항 축제는 1988년, ‘이즈하라항 아리랑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는 한국인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

31) 1989년



‘강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였다(무라카미, 2015). 한국인 관광객 유인의 측면에서 통신사행렬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증가하자, ‘조선통신사’를 쓰시마시 관광을 어필하는 전면에 내세워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시행하였다(Shin, 2014). 통신사행렬의 정사와 부사<sup>32)</sup> 역할로 부산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행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서교환식’을 추가하는 등, 축제 자체를 하나의 교류행사로 탈바꿈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지주민 위주의 축제는 한국인 관광객을 노린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Shin, 2014). 현지 이벤트로 시작되었던 ‘통신사행렬’은 과거 조선통신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한일교류’라는 새로운 담론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무라카미2015; 나카무라, 2016).

[표 4-3] 이즈하라아리랑축제와 조선통신사 행렬의 변화과정

연 도	변 화 내 용
1964	이즈하라 미나토마츠리 시작
1980	통신사행렬이 축제의 주요행사로 추가
1988	‘이즈하라항 아리랑제’로 개칭
1994	‘국서교환식’ 추가, 부산시관계자 초청
2000	부산시 조선통신사 행렬행사 시작, 상호 재현행사 방문·교류
2003	쓰시마부산사무소 설치, 한국 민간단체 참가 시작
2013	관음사 불상도난사건의 여파로 축제개최 취소
2014	‘아리랑’명칭 삭제되어 ‘쓰시마이즈하라항제’로 개칭

(출처: 무라카미, 2015 재구성)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초국적 교류가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개인 행위자의 역할 또한 큰 역할을 하였다. 쓰시마를 중심으로 한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회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츠바라 대표이사와 한국의 학자 강남주 교수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개인적 교류를 맺게

32) 통신사를 이끌었던 일종의 책임자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이 이에 해당한다.

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 두 인물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과 쓰시마에서 각각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면서 두 지역을 잇는 연결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각각의 지역 내에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역 엘리트로, 이들의 주도로 부산과 쓰시마 모두 시 차원에서 여러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 내 연고지가 연합하여 NPO연지연을 결성한 사건 언급) ... 이후 강남주 선생님과 후쿠오카에서 알게 되어서 이왕이면 일본과 한국이 함께 문화 교류를 해보자고 손을 잡게 됐습니다. -마츠바라 NPO연지연 대표이사 인터뷰(부산문화재단, 2018).

이렇게 공적 영역과 민간 조직, 그리고 개인을 포함하는 연합이 쓰시마의 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교류를 목표로 ‘국경의 섬’ 담론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부산지역과 쓰시마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래 [표4-4]는 1986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교류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서 처음 교류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과, 점차 다층적인 주체와 스케일로 확대되는 초국경교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sup>33)</sup> ‘국경마라톤in쓰시마’, ‘쓰시마친구음악제’와 같이 국경을 테마로 하는 축제가 기획되어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왕래를 만들었고,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단위에서 두 지역을 오가며 교류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공적 부분과 민간부분을 막론하고 문화·교육적 측면에서의 교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쓰시마 부산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부산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담조사#면담4)

---

33) 2003년 하반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교류현황은 쓰시마 부산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tsushima-busan.or.kr/>) 참조

[표 4-4] 부산과 쓰시마의 초국경교류 (1986~2004)

연도	월	교류 내용
1986	5	쓰시마와 부산 영도구 자매 결연 체결
1989	5	카미쓰시마초 히타카쓰항-부산항 부정기 항로 쓰시마 국제라인 「아오시오 호」취항
1993	5	쓰시마-마산 국제 정기항로 취항
1994	5	대마도 6개 초(町)과 부산시 영도구 행정교류협정 조인
2000	2	이즈하라초 국제교류협회 시찰 교류 (부산시 내 관계단체와 교류회 개최)
	4	쓰시마고등학교 학부모회, 동래구 고등학교 방문 이즈하라-부산 정기항로 「씨플라워 호」 개설
2001	1	신세기 우정의 음악제(이즈하라초) 부산 청소년 교향악단 앙상블, 한일청소년 예술단 참가
	4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와 경주 벚꽃 마라톤」자매결연 조인 (가미쓰시마초)
	6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에 구타중학교 음악부 13명 참가
2002	2	「제1회 新호수 외교세미나」개최
	6	월드컵 개최기념 퍼레이드(용두산공원 주변)에 쓰시마에서 60명 참가
		이즈하라정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행사시 부산에서 50명 참가 「쓰시마 코리언 먼스」 개최
2003	2	럭비 한일 친선 경기 (부산대학교OB-쓰시마야마네코클럽)
	4	쓰시마 부산사무소 개설, 법인등록, 개소(5월)
		한일 히비키 교류 : 미네초(三根町)패밀리파크완공기념 한일고교생 취주악 교류
	5	부산외국어대학교 청소년정대 쓰시마 해안 경화 활동
	6	쓰시마 부산민속예능제 개최
		한일 오픈칼리지 (대학생 홈스테이 교류사업)
7	제8회 쓰시마 친구음악제	

(출처:쓰시마시 부산사무소 홈페이지 재구성)

이처럼 지역 내부에서 일어난 한국과의 교류 활성화의 추구는 민·관을 아우르는 쓰시마의 지역 행위자들이 성장연합을 결성한 결과였다. 이들은 쓰시마를 매개로 했던 역사적 기록을 국경을 뛰어넘는 연합의 상징으로 홍보하였고, 한국의 지역들과 새로운 연합의 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이들의 연합은 국경을 초월해 한국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연대의 공간’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 2) 한국인 관광객유치 성공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 (1) 한국인 관광객의 유입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서 두 지역의 행위자들이 스케일을 뛰어넘는 연합을 형성하여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결과로서 나타난 변화는 쓰시마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이다. 한국인 관광객의 쓰시마방문은 1999년, 대아고속이 처음 부산-이즈하라 항로에 취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쓰시마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항선의 면허 기준이 5천t급 이상에서 5백t급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선사의 취항이 비교적 수월해진 것이다. 이에 포항~울릉도 노선을 운행하던 대아고속해운은 승객 격감으로 계류상태에 있었던 쾌속선 오션플라워호와 씨플라워호를 쓰시마항로 취항을 통해 활용하려 시도하였고, 성공적으로 취항하였다(부산일보, 1999. 03. 19.). 이렇게 정기선의 취항으로 쓰시마의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쓰시마는 2004년부터 부산 및 서울지역에서 쓰시마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05년,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관광목적 방문 비자가 면제되면서 일본에 대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인 쓰시마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경 지역의 섬인 쓰시마 또한 덩달아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여행객이 증가하였다(Shin, 2014).

쓰시마를 찾는 관광객의 성격과 관광객 수의 증가 폭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 지진 이후 일본 관광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져 대아고속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부산과 쓰시마를 오가는 정기선이 한동안 단절되었다. 그러자 쓰시마시장이 부산을 방문해 쓰시마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운항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결국, 대아고속이 쓰시마 시 정부로부터 운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다시 취항하였다.<sup>34)</sup> 그리고 같은 해 말, JR큐슈고속과 미래고속에서

---

34) 쓰시마 시와 나가사키 현은 관광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며 대아 측에 운항유지를 요청했고, 현과 시에서 약 4,600만 엔의 보조금을 지난해 6월 추가경정

쓰시마항로에 새롭게 취항하면서 쓰시마에 취항한 정기쾌속선이 세 척으로 늘어났다. 이 두 선사는 본래 후쿠오카와 부산 사이를 오가는 고속선을 운항하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해당 노선의 승객이 감소하는 반면, 영향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쓰시마항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면담조사#면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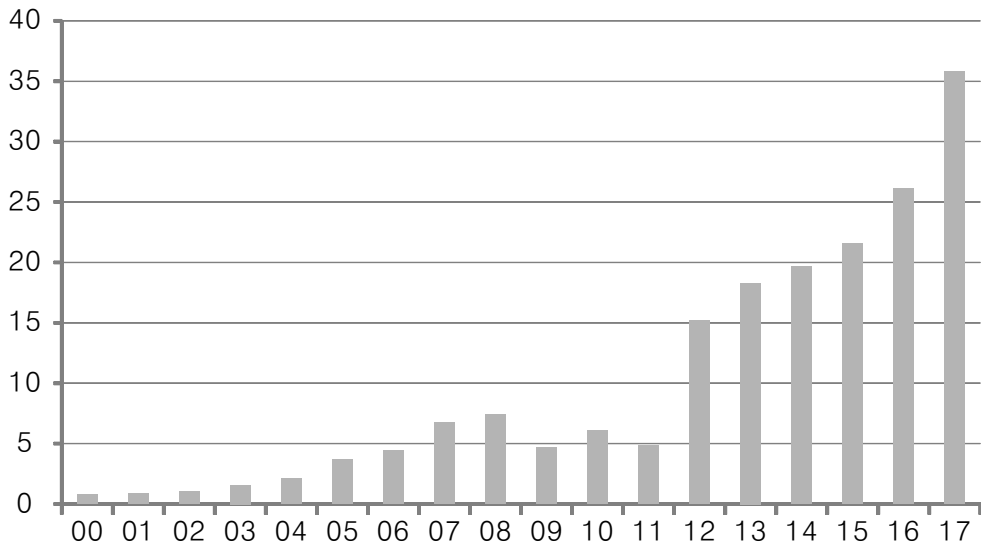
[표 4-5] 쓰시마 관광업의 발달과 고속선 관련 주요 사건일지

일 시	사건	선사	정원
1999. 7.	오션플라워호 취항	대아고속	445명
2011. 03.	대아고속 동일본대지진 항로취소		
2011. 06	대아고속 운항재개		
2011. 10	비틀(Beetle)호 취항	(주)JR큐슈고속	200명
	코비(Kobee)호 취항	미래고속	200명
2016. 10.	니나(Nina)호 취항	미래고속	440명
2018. 2	오로라호 취항	한일고속해운	319명

(출처: 저자 작성)

이때를 기점으로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수십프로 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전의 한국인 관광객의 특징이 ‘단체·단기간·중장년층’이었던 반면, 2011년 이후에는 ‘개인·단기간·젊은 층’으로 변화하였다(나카무라, 2016). 이것은 한국 내 배낭여행의 활성화와 더불어 쓰시마관광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자연적 풍광을 쫓아 중장년층이 방문하던 섬 쓰시마는 일본문화와 쇼핑을 즐기는 젊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관광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에 계상했다. 쓰시마-부산 항로는 6월 17일에 재개했다. 나가사키현과 쓰시마시는 대아 측에 월 평균 1만 5천 엔의 접안료를 보조했고, 대아 측 왕복편을 이용해 관광투어를 기획한 여행대리점에 여행객 1명당 최대 천 엔을 보조했다(제이피뉴스, 20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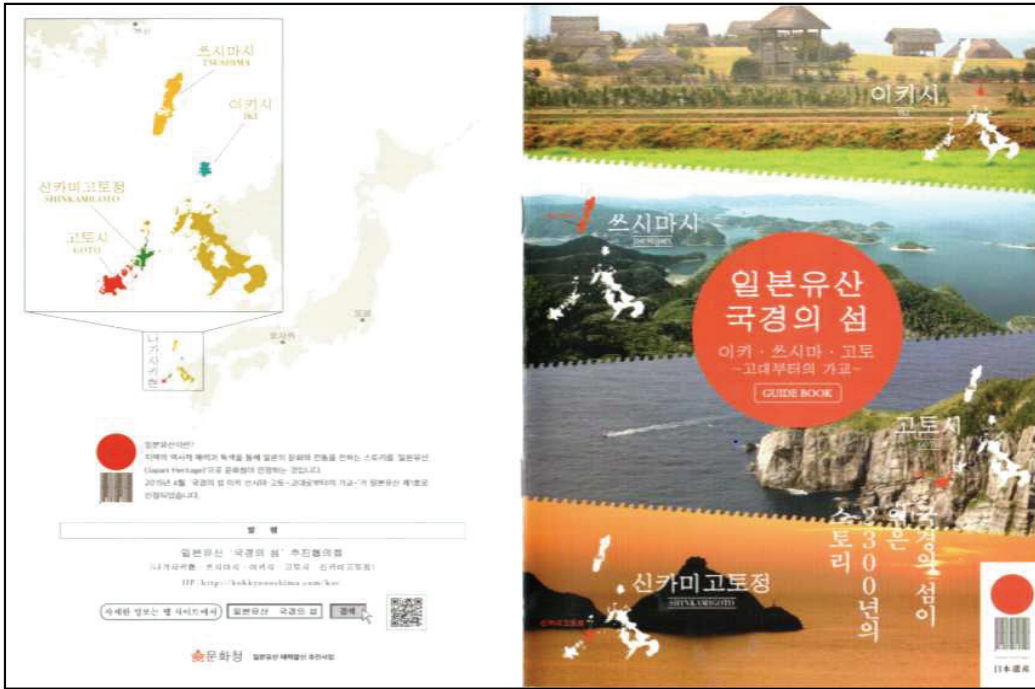
[그림 4-5] 연간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인관광객 수 변화 (만명)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내 통계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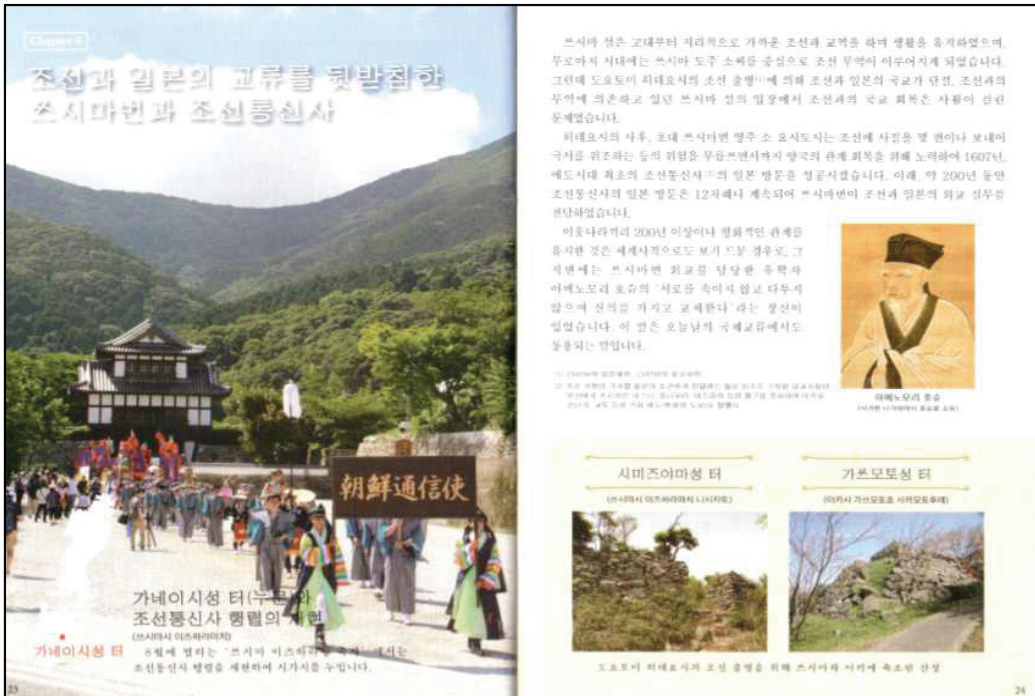
## (2) 쓰시마의 관광객 유치전략

오늘날 쓰시마의 관광산업은 섬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산업 중 하나로, 실제 관광객의 소비에 의한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쓰시마 시 정부 차원에서도 관광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쓰시마는 한일교류의 역사를 스스로를 구성하는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국경의 섬’, 혹은 ‘한일교류의 섬’ 과 같은 표현<sup>35)</sup>을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나카무라, 2016). 즉, 쓰시마는 자체적으로 경계공간임을 인식하고 국경에 인접한 특성을 활용하거나 관련 담론을 생산·재생산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쓰시마가 홍보에 활용하는 전략은 과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서 생존했던 역사를 강조하는

35) 2018년 6월, 히타카즈나오키(比田勝尚喜) 쓰시마시장의 쓰시마시 지역 전반에 관해 보고하는 ‘현지보고문’의 첫 항목 제목을 ‘경계의 섬, 쓰시마’로 기술하는(JA共済総合研究所, 2018)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관광객자 ‘일본유산 국경의 섬’ 표지



[그림 4-7] 관광객자 ‘일본유산 국경의 섬’ 내 조선통신사 관련 페이지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쓰시마에서 발간된 관광 책자를 스캔한 아래 [그림4-6]과 [그림4-7]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책자의 표지는 쓰시마를 주변의 이키, 고토 섬과 함께 ‘일본유산, 국경의 섬’이라는 명칭 아래 ‘고대로부터의 가교’라는 중간적 역할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경의 섬’으로 존재하는 ‘2300년의 역사’를 강조하여 두 나라 사이에서 오랜 기간 만들어낸 역사적 맥락성과 서사를 강조한다. 쓰시마는 이처럼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역사를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하면서 섬을 마케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나카무라, 2016).

마지막으로 [표4-6]는 쓰시마 시가 쓰시마를 대표하는 15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발간한 공식 관광홍보 책자의 표제를 분석한 것이다. 쓰시마를 대표하는 주제들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성을 강조한 키워드가 6개 테마(회색 항목)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쓰시마는 ‘국경’에 위치하며 한국과 교류하였던 지정학적 역사와 그 흔적을 바탕으로 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기인식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쓰시마 공식 홍보자료 표제 모음

연번	주제어	부제문장
0	역사도, 자연도, 문화도, 음식도, 아웃도어도.	천천히 ‘섬의 시간’에 몸을 뉘이다
1	방인 <sup>36)</sup> 의 탄생과 그 역사	국경의 섬에 남은 방인(=변방수비병)들의 이야기. 이국을 감시하는 고대 산성을 방문하다.
2	신들을 모으는 섬	바다와, 섬과, 신들.하늘과 바다가 교차하는 파워스팟.
3	몽고와 왜구, 그리고 평화	대답하라, 쓰시마의 용자들이다. 쓰시마도주 소씨의 시작을 찾다.
4	초대번주 소요시토시와 고시니마리아	번영 뒤에 감춰진 슬픈 부부애. 성아랫마을의 정취와 야사를 찾아서.
5	포대의 섬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섬에 잠든, 다수의 포대의 비밀에 머물다.
6	자료 미확인	자료 미확인
7	돌에 얽힌 이야기	돌에 이끌리다. 모녀, 스토파워의 섬에 가다.



8	일본의 마을, 미인의 마을	미녀전설의 마을을 방문하다. 자, 쓰시마 최남단의 마을 쓰쓰로 가보자.
9	영험하고 흰 산에 오르다	원생림의 산길과 절경의 산정상 신들의 힘을 느끼는 트래킹
10	동물들의 낙원	국경의 섬을 칠하는 자연에 닿다, 느끼다 희소동물이나 철새들이 내려앉은 섬
11	조선통신사모환	열린 바다의 길 치마저고리 춤추는 역사그림물결에 취하다
12	쓰시마의 에코투어리즘	치유받고 싶다면, 쓰시마로 오세요. 대자연의 품에 마음을 풀어놓는 여행
13	방인들의 시집	꽃피면 꽃에게, 달을 보려면 달에. 시간을 초월해 가슴을 울리는 망향의 그리움, 가족에의 사랑
14	국경의 섬	국경의 이국성을 만나러 산으로, 곶으로, 마을로 천년의 우호의 불씨를 피워나가는 국경의 섬

### 3) 쓰시마시·나가사키현 정부의 지역활성화정책과 관광산업

여기서는 쓰시마시와 그 상위 행정단위 나가사키현이 지역발전전략에서 쓰시마의 관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시도한다. 쓰시마시와 나가사키현은 쓰시마의 관광을 주요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중단되었던 항로를 복구하기 위한 쓰시마의 적극적 대처를 보더라도, 한일교류는 실제로 쓰시마의 지역 행위자들에게 생존을 담보하는 이해관계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초국경성장연합을 구성하는 행위자들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 하는 쓰시마 시 정부 행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 혹은 문화적 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섬의 위기에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

#### (1) 쓰시마시의 관광지원정책과 지역활성화정책

##### － ‘쓰시마시 관광진흥추진계획’

36) 7세기 백제의 패망 이후, 국경의 전초기지였던 쓰시마를 방위하기 위해 본토(東國)에서 파견되어왔던 보초병들을 뜻한다. 이들의 타지에서의 삶과 애환에 관한 여러 기록과 유물이 존재한다(윤혜숙, 2007).

쓰시마 시 정부에 의한 관광정책은 2017년 발간된 ‘쓰시마시 관광 진흥추진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계획서는 쓰시마시와 나가사키현의 지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에 관한 항목을 종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제2차 쓰시마시 종합계획’, ‘쓰시마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계획’, 그리고 ‘나가사키현 관광 진흥 기본계획’ 고차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쓰시마시 종합계획’은 2016년에 계획되어 2025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쓰시마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내는 지역개발계획이다. 여기에서 쓰시마가 지향하는 2025년의 쓰시마의 모습은 ‘젊은이로 북적이는 희망의 섬’,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섬’, ‘서로를 지탱해 자립한 섬’,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삶이 가능한 섬’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중,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섬’ 항목에서 ‘관광객의 유치에 의한 활성화’가 포함되어 한국인 관광객과 관련해 구체적 도전목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객의 유치에 의한 활성화’

: (1) 관광객 대상으로 발신, PR의 강화, (2) 관광객 유치체제의 정비, (3)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면밀히 대응 (제2차쓰시마시종합계획, 2016).

또한, 쓰시마 시청에서 발간된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정책자료 ‘쓰시마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종합전략’ (쓰시마시, 2015)에서도 한국과의 교류·관광과 관련된 ‘교류대책’들을 인구감소대책의 기초대응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을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자료는 네 가지 중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쓰시마에서만 가능한 고용·일 자리를 만들고, (2)섬의 매력을 살린 교류·이주·정주를 보장, (3)안심하고 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4)고령자가 건강하게 살 맛이 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중 (2)에 해당하는 ‘교류·이주·정주의 보장’에서 다음 [표4-7]과 같은 시책 및 사업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표 4-7] 쓰시마 마을·사람·일자리 상생종합전략 인구감소 대책 - 교류대책

시책·사업명	내 용
숙박시설 확충확대 지원사업	시의 자연, 역사, 등의 자원을 알리기 위해, 관광객의 당일치기 관광의 감소를 위해,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 또는 창업에 지원을 실시한다.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도록 한다.
섬 일으키기 협동 대사업	특정 분야의 지식·경험을 갖는 도시지역의 외부인재를 받아 들여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를 지원한다. 협동대 졸업 후의 창업·정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주 인구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리도 항공노선확보 대책보조금	ORC 노선의 편수유지 또는 이용촉진을 위한 조성을 통해 교류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자연과 함께 사는 섬, 캠핑TSUSHIMA 사업	캠핑시설의 매력을 높여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교류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쓰시마 관광 리뉴얼 사업	‘유인체제의 강화’‘정보발신의 강화’‘유치의 강화’등 사업 실시를 통해 교류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관광안내판·유도판정비사업	관광안내판, 유도판 등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여 교류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관광정보관 ‘쓰시마맛이방’사업	관광정보관 ‘쓰시마맛이방’을 관광을 비롯한 물산 정보 등 게이트웨이 기능을 갖춘 종합창구로 강화해나간다.
쓰시마 만남의 장 step-up 사업	미디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도시부(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큐슈북부지역)에 대해 쓰시마의 PR을 실시해나가 본 시를 방문할 기회의 확대를 꾀한다.
국경의 섬 쓰시마 PR활동 사업	현지맛집의 PR을 활용한 효과적인 광고활동을 전개하여 쓰시마시의 이미지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조선통신사 기억유산 등록 사업	쓰시마 또는 조선통신사 행렬 등을 기록유산으로 등재 하는 일과 관련된 사업. 역사 가치를 높여 교류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림수산업을 주체로 한 각종 체험사업	쓰시마의 특성을 살려 각종 체험사업을 시내 민박사업자나 관광물산협회 등 관계기관과 연동시켜 연중 내도록 실시 가능한 체제로 강화한다.
체재형 관광메뉴의 개발사업	트래킹 코스의 확충, 마을 걷기코스의 정비 등 한일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메뉴를 개발한다.
쓰시마 바닷길 음악축제 운영 보조금	음악을 통한 국제교류와 교류인구확대사업의 실시를 통해 교류인구의 확대를 꾀한다.
이즈하라항 축제	국제교류와 교류인구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	국제교류와 교류인구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바다와 산 교류사업	물산, 사람, 문화,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간의 매력이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지역 간의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교류인구의 확대를 꾀한다.

(출처: 쓰시마 마을·사람·일자리 상생 종합전략 2015.12.)

2016년, 나가사키현에서 5개년계획으로 발간된 ‘나가사키현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쓰시마 지역 항목에서도 나가사키현이 쓰시마 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대해 갖는 기대를 유추할 수 있다. 이 계획서는 나가사키현 내에 위치하는 각 시 단위 지역별로 관광 진흥에 대한 정책을 큰 맥락에서 설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계획자료 내의 ‘쓰시마 지역의 시책과 방향성’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4-8] 쓰시마 지역 시책과 방향성

시책	구체적 내용
국경의 섬이자 역사문화·자연 등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메뉴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유산으로도 지정된 국경의 섬 특유의 역사문화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메뉴의 개발을 지원한다.</li> <li>·쓰시마의 특산품을 살린 ‘먹거리관광’의 창출을 지원한다.</li> <li>·부산과의 연대를 통해 쓰시마·부산을 하나의 필드로 하는 관광 메뉴의 구축을 기획한다.</li> </ul>
한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체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핑이나 트래킹 등 한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콘텐츠에 관한 정보의 발신을 강화한다.</li> <li>·한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 관광객의 주유·체재를 촉진하기 위해 아웃도어 관련 시설의 리뉴얼정비나 이용촉진을 한다.</li> <li>·한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내소비의 확대를 위해 면세점의 확충이나 식음 메뉴의 다언어화 등, 인바운드를 의식한 점포경영을 지원한다.</li> </ul>
정보 발신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정보관쓰시마관광안내소’나‘쓰시마박물관’등을 거점으로 하여 정보발신 강화의 조직을 추진한다.</li> <li>·웹사이트에 의한 정보 발신을 강화시켜, 쓰시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li> <li>·쓰시마의 매력을 역사문화, 자연, 식도락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관광가이드 육성을 기획한다.</li> <li>·이키나 고토섬처럼 현 내의 ‘섬’이 연대하여 조직한 관광 상품의 개발, 여행객 유치·촉진 등을 지원한다.</li> </ul>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등의 준비와 친절한 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를 돌아다니기 위한 교통망의 정비나 관광객의 수요에 적합한 숙박시설 등을 정비하고 손님맞이를 향상한다.</li> <li>·국내외에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항로·항공로의 운임저렴화, 또는 승객수송력유지 등을 지원한다.</li> <li>·쓰시마로의 크루즈 여객선이 기항가능한 항만체제의 정비나 크루즈 여객선 증가를 위한 유치활동을 촉진한다.</li> <li>·쓰시마를 방문한 관광객이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친절한 맞이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li> </ul>

(출처: 나가사키현 관광진흥 기본계획, 2016)

## (2) 나가사키현의 관광지원정책과 지역활성화정책

한편, 관광과 관련된 쓰시마의 지역발전전략을 구성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쓰시마시가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나가사키현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획되고 있다. 나가사키현은 많은 부속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과거 중세시기로부터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과 교역하는 등 국외와의 교류로 특화된 곳이었다. 거리상으로는 후쿠오카현에 절대적으로 가까운 쓰시마가 후쿠오카현이 아닌, 나가사키현 소속인 것도,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행정적 배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가사키현 또한 현재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설정해 현의 경제를 살리려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쓰시마 지방정부와 상위 행정단위인 나가사키현 사이에서 일맥상통한 방향성을 갖고 상호유기적인 정책의 지원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현 외부, 더 나아가 국가 외부에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県)이 나가사키현입니다. 동떨어진 섬 지역이다 보니 교통편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쓰시마도 비슷한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교류와 같이(외부진출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면담조사#면담2).

나가사키현이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단기적인 현 발전 종합계획서로 제작한 ‘나가사키현 종합계획 챌린지 2020’의 ‘정책·전략’ 파트에 실려있는 지역별 계획에서, 쓰시마 지역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나가사키현 단위에서 쓰시마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의 방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정책서는 쓰시마시의 ‘지역 만들기 방향성’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아래 인용과 같다. (2)와 (4)의 항목에서 살펴보듯, 나가사키현의 관점에서 쓰시마는 일본 전체적으로 ‘대륙’과 가장 가까운 입지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1) 쓰시마의 바다, 숲, 땅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섬 만들기. (2) 대륙과의 교류에서 배양된 역사문화를 활용한 매력 있는 섬 만들기, (3) 귀중한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쓰시마’의 풍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지구환경에 착한 섬 만들기, (4) 대륙에 가까운 입지를 활용한 물적·인적 교류가 풍부한 섬 만들기 (5) 도민 모두가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섬 만들기

위 자료들로부터 쓰시마와 나가사키현은 시(현)정부 행위자의 주도와 지역 상공업 협력체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국제적 교류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쓰시마의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쓰시마는 물론, 나가사키현 차원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경계의 섬’의 이면: 국가주의적 갈등과 오버투어리즘

쓰시마가 교류의 역사를 통해 연결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와 쓰시마 사이의 경계에는 교류와 협력으로 대표되는 상호연계적 특성뿐 아니라, 국가주의적 층위에서 갈등과 충돌 또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쓰시마에 대한 지역 내외부에서 국가주의적 불안감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반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역사에서 비롯된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위기의식

쓰시마에 대한 국가주의적 불안감은 과거 역사 속에서부터 형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 충돌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쓰시마에는 백제멸망 이후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해 가네다성(金田城)이 축조되었고, 여·몽 연합군이 최초로 상륙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 또한 쓰시마였다. 근대에 이르러 러일전쟁에도 활용되었고, 이후 섬 전체가 요새화되는 과정을 통해 쓰시마는 ‘전방’ 혹은 ‘전선’으로 존재하며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절감하였다. 쓰시마는 항시적으로 한반도 및 대륙의 세력들로부터 침입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방파제로 존재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도 가장 앞서서 동원되는 등 군사적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하였다.

쓰시마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는 독도와 더불어 한일 양국 사이에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독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한일 경계지역에 독도와 함께 유이하게 존재하는 섬으로서 쓰시마 또한 해상경계지역에 위치하며 뿌리 깊은 영토적 위협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다. 1949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대마도반환촉구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갈등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쓰시마에 대한 한국 내부의 국가주의적 담론 형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순천시는 2005년 8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여 시마네현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하였고, 2012년에는 국회에서 ‘대마도포럼’이 개최되어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도 최근 쓰시마관광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며 ‘대마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기도 하였다. 일부 관광객들이 쓰시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를 쓰시마에서 개최하기도 하면서 충돌이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쓰시마를 둘러싼 국가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갈등은 단순한 담론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갈등이나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측면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의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한국과 교류가 깊어질수록 ‘쓰시마

가 위험하다’ 라는 선동적인 경계론이 미디어를 통해 주장되고(나카무라, 2016), 여론이 이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쓰시마관광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특히 주로 우익 언론매체나 온라인 여론에 의해 ‘쓰시마 섬의 위기’ 로 비추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자본이 쓰시마에 숙박업소를 짓거나 토지를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 섬이 잠식당한다고 주장하며 ‘쓰시마가 한국인들에 의해 점령된다’ (산케이신문, 2012)라는 식의 위협적 논조를 구성하여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 (2) 오버투어리즘 : 관광객에 대한 실제적/상상적 마찰

앞에서 살펴본 쓰시마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위기의식이 비교적 섬 외부의 일본 내 여론이라면, 여기서 살펴볼 오버투어리즘은 섬 내부에서 관광객과의 마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반감을 다룬다. 이때의 마찰은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충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구성된 ‘한국인 관광객’ 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상상적 마찰 혹은 반감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한국과의 교류, 혹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관광객과의 실제적 마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발은 대부분 예의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한감정은 일상공간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되는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오버투어리즘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용한 섬의 작은 촌락인 쓰시마의 항구마을 이즈하라와 히타카츠는 고속선의 취항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몰려왔다 빠져나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생활적인 측면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사나 행정당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유인물을 통해 경고 및 주의를 부탁한 결과 실제로 관광객의 여행예절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나카무라, 2016). 하지만 여론에서는 관광객과의 마찰사례를 강조하고 확대해석하여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에 대한 반감은 처음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연하는 상황에서부터 존재하였다. 1980년 신기수의 다큐멘터리영화가 계기가 되어 지역의 차별적 특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선통신사행렬 진흥회’가 결성되었을 당시, 일부 현지주민이나 지역 내외의 우익단체로부터 ‘왜 한국의 흥내를 내야 하나’ 하는 불만이나 항의의 목소리가 진흥회에 전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섬 내부의 민간차원에서 갖는 딜레마가 존재한다(나카무라, 2016). 쓰시마를 방문하는 일본인 국내 관광객은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안고 쓰시마를 방문하지만, 실제로 ‘그냥 일본의 시골’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쓰시마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국과의 관련성을 강조해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국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드러내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 가운데, 인위적인 측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일부 주민들과 갈등이 있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반감과 충돌은 2012년, 쓰시마 관음사에서 일어난 불상도난사건<sup>37)</sup>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분출되었다(김경임, 2015). 오버투어리즘의 상황에 의한 갈등은 불상도난사건을 계기로 폭발하여 쓰시마 내 한국인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나 상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가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프리미엄조선, 2014.11.29.).

쓰시마의 경계는 한편으로는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의 공간’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

---

37) 2012년 10월 2일, 3명의 절도범과 자금책, 알선책, 판매책에 해당하는 한국인이 조직적으로 쓰시마의 신사 세 곳을 무단 침입해 문화재 3점을 한국으로 불법반출했던 사건. 간논지(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고려 관음보살좌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왜구에 의한 약탈을 통해 쓰시마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고, 한국 내에서 반환반대여론과 실제적 행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직 행정절차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반환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았듯,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적 충돌과 대립이 만들어지는 ‘갈등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경의 섬’의 이면에는 여전히 국가주의적 갈등과 반감의 형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경계공간으로서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제 5 장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 1. 초국적 스케일의 성장연합: 한-일 공동등재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동등재로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가 보통 한 국가에 의해 국가의 문화유산을 등록하는 데 반해, 이 사례는 두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해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등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초국경연합의 사례로서 특성을 분석한다.

#### 1) 부산과 쓰시마의 상황적 맥락

부산에서는 2001년, ‘부산바다축제’에서 ‘조선통신사와 한일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는 행사로 조선통신사 행렬이 부산에서 재현되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통신사에 관한 행렬을 재연하는 행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뒤이어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가 발족하며 통신사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제의는 이렇게 점차 고조되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선통신사’라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처음 국경을 오가며 한국에 알린 것은 학자 및 전문가집단이었다. 이들은 학문적 호기심과 이를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에 의해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 몇몇 행위자들은 한국에서 정작 조명되지 못하는 통신사의 행렬이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재연되는 상황에 모순을 느끼고,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쓰시마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한국의 학계나 일반 사회에서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가진 본질적 이유는 조선통신사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가주의적 자부심 혹은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상징성이 부여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선통신사는 과거 선진적 문물을 전해주었던 ‘전파자’, 혹은 ‘시혜자’로서의 조선과 그것을 받아들였던 일본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조선통신사를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당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이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정장식, 2005), 이 사례에서도 조선통신사에 주목하고 널리 알리기를 기획한 계기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조선통신사 관련 행렬을 재현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왔던 거를 기리면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부산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면담조사-#면담4)

따라서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내포하는 국가주의적 상징성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한국 내의 반일감정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로서의 기억과 이후 경제적 구조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최종호 외, 2014). 조선통신사와 그 관문으로 존재했던 쓰시마에 대한 관심과 복원의 시도는 이렇게 손상된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 발로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한국 행위자, 혹은 일반 대중의 반응은 어느 정도 국가주의적 감정에 근거한 접근인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한편, 쓰시마에서는 조선통신사와 쓰시마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와의 역사적·문화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의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나카무라, 2016). 교류와 소통, 특히 관광이라는 방식과 담론을 통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섬 안팎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을 정당화할 강력한 계기가 필요했고,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는 이에 대한 최적의 대상이었다. 한일교류에서 쓰시마의 역할을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라는 역사적 대상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쓰시마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명확히 확립해 한국지향적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쓰시마를 방문하거나 잠재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조선통신사는 한반도와 관련 있는 역사·문화적 유물이나 흔적 가운데 가장 강하게 쓰시마의 역사적 관련성을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덕혜옹주 결혼봉축비’ 나 ‘최익현 순국비’ 와 같이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유물보다, 평화와 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는 다양한 맥락과 층위에서의 담론이 존재하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는 그 의미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런 맥락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 2) 공동등재를 위한 초국적 연합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실제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교류하던 한-일 양국의 개인 혹은 민간행위자들이었다. 부산지역에서는 2005년, 조선통신사학회가 창립되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안에 대해서는 2007년,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학술대회에서 당시 조선통신사학회 회장이 처음 제안하였다. 당시에는 별다른 호응이나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 시모노세키에서 조선통신사 행사 이후 만찬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일본의 NPO연지연 측 행위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2년, 부산문화재단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남송우 대표이사의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면담조사#면담2).

한국에서 조선통신사학회 학회장을 맡았을 당시 학술적 뒷받침이 없으면 조선통신사 문화 행사만으로는 지속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 내 문화재로 남겨두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격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2007년 시모노세키에서 축제가 끝나고 한국 대표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조선통신사의 기록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모노세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마쓰바라 씨가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죠. 일본과 손잡고 같이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2007년 8월 무렵 시가 현 청년회가 시모노세키에서 오사카까지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바닷길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가 출발한 땅이 부산이고 처음 상륙한 곳이 쓰시마인데 부산과 쓰시마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쓰바라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부산과 쓰시마를 빼놓고 조선통신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공감해 줬습니다. -한국 측 추진위원회 학술위원장(2007년 당시 조선통신사학회 회장) 인터뷰(부산문화재단, 2018).

이렇게 2012년, 부산문화재단이 공식적으로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 협의회에 한·일 공동등재를 제안하면서 공동등재 신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유네스코 공동등재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유네스코 등재는 처음 발의에서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의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는 이전부터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서 조선통신사라는 역사적 대상을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왔고, 그러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공감대와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2. 지역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초국적 연합

### 1) 상황적 배경: 국가적 갈등상황과 경색된 한일관계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등재라는 점에서도 독특하지만, 국가의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스케일에서 추진이 이루어져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다. 아래 유네스코 등재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했던 행위자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및 관련 정부 기관의 무관심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지원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당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과 같은 정부산하기관과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데, 대체로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앙기관의 문화재를 가지고 지방정부 산하의 기관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태도였고, 또 양국 간 분위기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런 것을 추진해도 되느냐는 식의 우려 섞인 편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 (중략) ...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담조사#면담3).<sup>38)</sup>

그런데, 당시 추진과 관련해 활동했던 행위자들은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상황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당시 국제적 한일관계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행위자들에 의한 추진이 이루어졌다면,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면담조사#강연1#면담1#면담3).

38) 일본 내에서 정부의 반응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국가 대 국가로 진행되었으면 등재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지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면담조사#강의1).

정부차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 목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면담조사#면담2).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즉, 문화재청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추진단체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양국 추진단체인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측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가 한·일 공동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유네스코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청의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신청할 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한국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나서 등재가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약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었다고도 진행 과정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협의를 한다면, 한·일간 정치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세부적인 사항 조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추진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등재 분위기만 조성하고 양국정부 단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정부단위에서 추진이 불가능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중략)… 한쪽에서만 국가가 참여하는 것도 한쪽 입장이 반영되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면담조사#면담3).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살펴보면, 부산문화재단과 연지연은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추진을 상정하고 이것이 가능하기까지의 분위기 조성에만 역할하려 했다. 하지만, 국가적 갈등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당시의 한일관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행위자의 관여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어 문화유산의 등재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문화재단과 NPO연지연은 전략을 수정하여 지방의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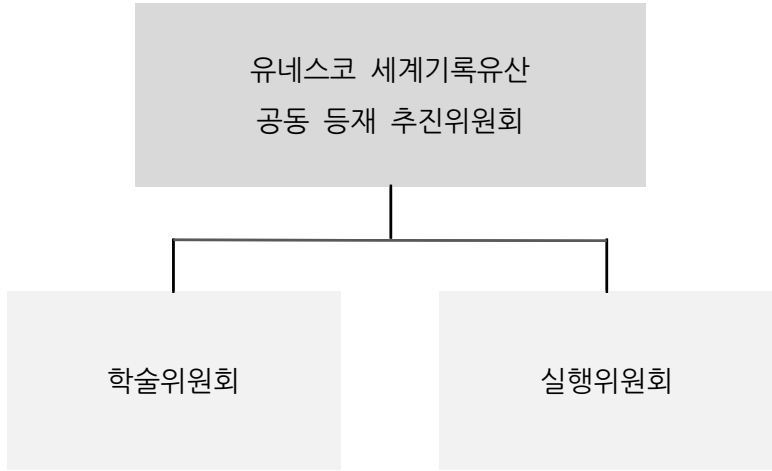
## 2) 지역 행위자들의 추진 - 부산문화재단/NPO연지연

유네스코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진행한 한국 부산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쓰시마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는 각각 추진위원회와 추진위를 꾸려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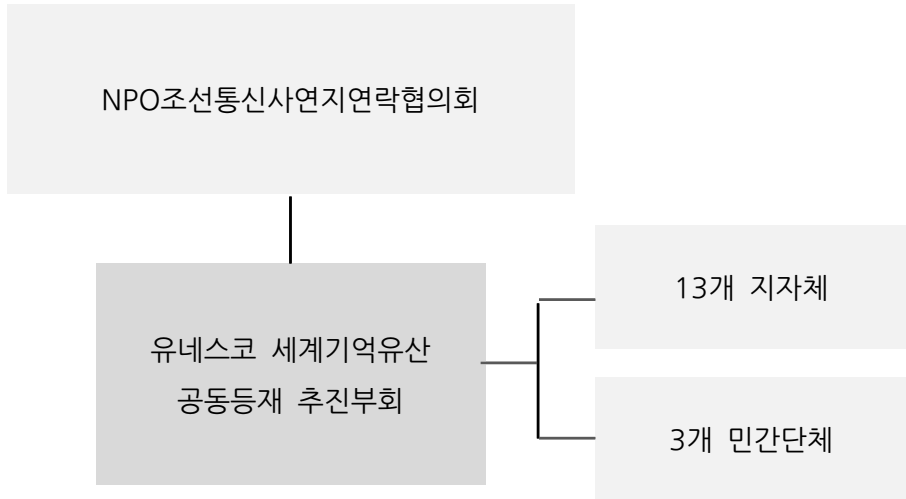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일반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지원사업법인으로, 2009년, 부산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부산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남주 대표이사는 1990년대 중반에 조선통신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에 관련 연구를 소개한 선구자적인 인물이다. 그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 부산에서 통신사행렬이 시작되었고, 조선통신사학회 및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가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가 자연스럽게 부산문화재단에 흡수되었고, 2010년 조선통신사 업무에 대한 위탁체결의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부산문화재단은 전국의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단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서가 있는 곳으로, 부산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일본의 각지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은 공동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조직으로 학술위원회와 실행위원회 학술위원회를 두었다(부산문화재단, 2018)

한편, 일본 측에서는 [그림5-2]와 같이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공동추진부회가 구성되었으며, 13개 지자체와 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일본의 지자체 및 민간단체는 [표5-1]과 같다.



[그림 5-1] 한국 측 공동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그림 5-2] 일본 측 세계기억유산 공동등재 추진부회 구성

[표 5-1]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공동등재 추진부회 구성 단체

구분	단체명	
지자체	쓰시마시	세토우치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야마시
	나가하마시	쿠레시
	이키시	교토시
	오미하치만시	가미노세키쵸
	시즈오카시	닛코시
	나고야시	
민간단체	호슈회(나가하마시)	
	조선통신사쓰시마현창사업회(쓰시마시)	
	공익재단법인 란토문화진흥재단(쿠레시)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 재구성)

유네스코 공동등재는 한국과 일본의 행위자들이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조선통신사에 대한 학문적 혹은 다양한 논의를 공유한 것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2012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부산문화재단과 연지연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행정부들 비롯해 여러 행위자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부산시정부를, NPO연지연은 쓰시마시정부와 쓰시마 내부의 상공회 등 지역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국경 공간 너머로 왕래하며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로 복합적인 연대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성공적인 스케일 뛰어넘기, 연대의 공간 형성

#### 1)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과정과 결과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 한국 측의 추진위원회와 일본 측 추진부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한국과 일본 내에서 여러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추진을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동으로 12차례의 학술회의를 진행하며 등재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였다. 등재신청서 제출까지 두 추진을 위한 단체가 진행했던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표5-2], [표5-3]과 같다.

[표 5-2] 한국 추진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

년도	월일	주요 추진 내용
2012	05.05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에 유네스코 공동등재 제안
2013	04.04 ~06	외교부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전문기관 간담회
	08.29	문화재청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목록 연구 관련회의
2014	06.16	유네스코 공동 등재 한국 추진위원회 발족식
	08.25	1차 한일 공동 추진 위원회(시모노세키)
	12.20	1차 학술위원회의(부산)
2015	01.	조선통신사기록유산 보전기관 방문 업무협의
	01.31	2차 학술위원회의(나가사키)
	03.06	3차 학술위원회의(시모노세키)
	04.03	4차 학술위원회의(부산)
	06.	기록물 보관 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 원본조사
	07.09	5차 학술위원회의(후쿠오카)
	08.24	6차 학술위원회의(시모노세키)
	10.02	7차 학술위원회의(부산)
	11.07	8차 학술위원회의(오사카)
	12.02	9차 학술위원회의(부산)
2016	12.08	10차 학술위원회의 및 추진 경과 보고회(부산)
	01.12	11차 학술위원회의 신청서 조율

		조인식 논의(후쿠오카)
	01.29	제3차 한일 공동 추진위원회 신청서 조인식(쓰시마)
	03.04	12차 학술위원회의
	03.25	유네스코 영문신청서 최종 점검회의
	03.30	공동신청서 제출(부산 우체국)
	05.06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11.21 -23	한일공동 홍보사업(프랑스 파리)
2017	04.10	유네스코 사무국 추가자료 제출 서신 접수
	04.11	긴급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
	5.15 ~17	조선통신사 축제 / 학술심포지엄 / 등재기원행사
	10.31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 재구성)

[표 5-3] 일본 추진부회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재과정

년도	월일	추진 사항
2012	05.05	조선통신사 관련 지역 전국 교류회 부산대회 개최
	10.01	특별위원회 유네스코 등록 방안 탐색(쓰시마시)
	10.19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국제 심포지엄(부산)
	11.21	연지연 임시 대회에서 사업 추진을 결의(교토시)
2013	06.12	문부성/외무성 방문, 정부 요청서 제출
	10.18	연지연, 나가사키현, 연구부회와 3자 회의
	11.02	연지연 세토나이대회에서 전문부회 설치 승인
2014	01.21	제2회 3자 회의(연지연, 나가사키현, 연구부회)
	03.04	부산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 기관 협의(부산)
	05.21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본추진부회 설립(나가하마시)
	06.23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본학술위원회 설립(코베시)
	08.08	제2회 일본추진부회(교토시)
	08.24	제2회 일본학술위원회-개요안/리스트안 검토
	08.25	제1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 합동 추진 회의(시모노 세키시)
	09.16	제1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합동 대표자 회의(후쿠 오카시)
10.06	제3회 일본학술위원회(오사카시)	

	10.27	제3회 일본추진부회(오카야마시)
	11.03	제4회 일본학술위원회(川越市)
	12.20	제1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부산시)
2015	01.16	제5회 일본학술위원회(오카야마시)
	01.31	제2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기억유산 등록 심포지엄(나가사키시)
	03.06	제3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위원회의(시모노세키시)
	03.25	제6회 일본학술위원회(오카야마시)
	04.03	제4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부산)
	04.25	제4회 일본추진부회(오카야마시)
	05.01	제7회 일본학술위원회(오카야마시)
	07.09	제8회 일본학술위원회 및 제5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대표자 회의)(후쿠오카시)
	08.23	제9회 일본학술위원회(시모노세키시)
	08.24	제6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시모노세키시)-등록대상 관련 추가 및 신청서 작성 관련 논의
	09.30	제10회 일본학술위원회(오카야마시)
	10.02	제7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부산시)
	10.15	일본학술위원회 신청서 편성회의(오카야마시)
	10.28	제4회 일본추진부회(나고야시)
	11.07	제8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오사카시)
	12.02	제9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대표자 회의)(부산시)
12.08	제10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회의(부산시)-신청서 내용의 확인과 결정 조선통신사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 등록 추진 경과보고회(부산)	
2016	01.12	제11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학술대표자 회의(후쿠오카)-최종안 결정, 조인식 협의
	01.29	제3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공동 추진회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 공동 신청서 조인식(쓰시마시)
	02.10	조선통신사 교류위원회 총회에서 추진상황 설명(도쿄)
	03.04	제12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일한대표자 회의(후쿠오카시)
	03.30	유네스코 위원회에 신청서 발송(부산 우체국에서 발송)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 재구성)

이들은 2년 안팎의 시간 동안 열두 번의 회의를 거치는데, 이 와중에 는 인터뷰 내용과 같이 등재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기도 하였다. 국가주의적 이해관계가 바탕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등재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에 있어 의견 차이가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쓰시마 초대도주 소요시토시의 초상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한국 측에서는 임진왜란에 선봉 부대를 이끌고 온 사람으로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양측이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 학술적인 공감대를 갖는 민간의 추진이었기에 가능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면담조사#장연1)

(임진왜란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출병이라는 단어를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한 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는데 결국 일본 측 학술위원장 나카오 히로시 선생님이 ‘침략’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등재 신청서에 한·일 양국 언어로는 침략, 영어로는 invas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양국의 등재목록이 거의 다 정해지고 나서 막바지에 등재 신청서에 쓰는 단어 하나 하나를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학술위원장 인터뷰(부산문화재단, 2018).

국가적 지원이 없는 상황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도 두 나라 이상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의 유일한 사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이 2009년 공동 등재한 ‘발트 3국의 자유를 위한 인간 사슬에 관한 기록’이다.<sup>39)</sup>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행위자들은 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에스토니아의 유네스코위원 마르깃 심(Margit Siim)을 초청하

39) 이것은 독일-소련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함께 소련에 편입된 이래 50주년이 되던 1989년, 3개국 국민들이 길 위에 동시에 늘어서 620km의 인간사슬을 형성하고 15분간 독립과 자유를 외치고 노래했던 사건이다. ‘발트의 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이듬해 3국 모두 독립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6년,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했고 2017년 10월 31일, 등재가 확정된다.



[그림 5-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107)

## 2) 연대의 공간 형성을 통한 지역성장

조선통신사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가 확정되고 1년 안팎의 시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선통신사는 부산과 쓰시마는 양쪽 모두에서 지역을 홍보하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지역은 조선통신사라는 대상을 매개로 새로운 교류의 중간 체류지로 스스로를 위치시켜 한일 양국에서 모두 주목받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한국과 쓰시마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로 작동한



다. 한국에서는 쓰시마라는 섬에 대한 관심의 출발지점이고, 쓰시마 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다. 앞서 연지연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혀졌듯, 쓰시마는 조선통신사라는 한국과 관련 깊은 역사적 대상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쓰시마는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전보다도 더 조선통신사를 쓰시마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아래 쓰시마시 부산사무소 소장의 인터뷰에서 살펴보면, 쓰시마는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를 기점으로 조선통신사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에 홍보하려는 모습은 쓰시마 아래 이즈하라쵸 중심거리에 기념 깃발이 줄지어 세워진 [그림5-4]와 쓰시마시의 홈페이지를 장식한 조선통신사의 그림 [그림5-5]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쓰시마시는 기록유산등재자료를 한점도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등재는 쓰시마시에 있어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관련된 행사를 했던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의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선통신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쓰시마시에서 조선통신사를 대표적으로 다루는 자료관을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이나, 도내에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해설을 충실하게 하고, 홍보를 위한 캐릭터 제작 등 시의 내외에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략)… 쓰시마시가 부산과의 교류 등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쓰시마 경제의 발전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관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쓰시마 시민의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면담조사#면담5).

상대적으로 쓰시마에 비해 지역성장과 조선통신사의 관련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던 부산시 또한, 조선통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등재에 부산의 지역행위자가 큰 역할을 하자 다양한 측면에서 기념행사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



[그림 5-4]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이즈하라초 중심가  
출처: 저자 촬영



[그림 5-5] 조선통신사 테마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출처: 홈페이지 캡처(18.12.12)

다. 특히,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국제적 교류활동이었기 때문에 교류와 소통, 연대의 역사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 조선통신사를 넘어 시 자체를 평화와 교류,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지정학적 전략지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가 확정되자, 이를 기념하는 행렬을 크게 열었고, 부산문화재단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부산과 쓰시마 모두에서 지역 성장의 계기가 되는 성공적인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

## 제 6 장 결론

### 1. 결론

부산과 쓰시마는 조선통신사가 왕래했던 조선 후기 250년의 기간을 우호, 교류,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전후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혼란의 근대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일 양국 사이에서 선린우호 교류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역사는 특히나 한일관계가 갈등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통신사가 이처럼 크게 재조명받게 된 것은 본론에서도 서술하였듯, 이즈하라항 축제에서 통신사행렬이 프로그램에 추가된 것이 계기로 작동한다. 무라카미(2015)는 쓰시마는 자체적으로 섬의 차별적인 특성을 발굴해내기 위해 역사와 전통 속에서 대상을 ‘우연히’ 찾아내 축제에 넣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침 이것이 ‘한국적’ 마케팅과 ‘쓰시마의 역사적 유산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아이템이었고, 한국 학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르게 된 과정은 가히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과거 역사지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던 유산이 현재에 남아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조선통신사와 관련해 쓰시마와 한국이 연결된 시작은 민간 차원에서 개인적 만남이었다. 그것이 지방단위에서 공적 섹터에서 받아들여지며 초국적 연결로 발전되었고 발전하여 두 지방정부의 결합을 이끌어냈다. 두 지역은 조선통신사라는 역사적 기억을 매개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쓰시마의 입장에서 한국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관광이라는 현재진행형인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확보하였고, 부산의 입장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우수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부산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서로의 상호이해관계가 작동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연합이 만들어졌던 것은, 각

자의 장소의존적인 이해관계를 확충하기 위한 연대의공간의 형성이었다.

기존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계는 ‘독도는 우리 땅’ 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공간이었다. 바다를 경계로 하는 까닭에 직접 맞붙으며 문제가 될 공간은 중간에 떠 있는 섬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도 이외에 한-일 경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섬 쓰시마에 대한 경계공간으로서의 논의는 독도에 관한 논의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선통신사를 둘러싼 초국가적 연합을 통해 살펴본 한-일 경계로서 쓰시마는 단순히 교류가 강화되며 열린 경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식의 단편적 서술로 표현할 수 없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쓰시마는 이렇게 그곳을 둘러싼 수많은 행위자들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계공간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연결하던 역사와,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교류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류의 섬’ 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적 영토의식 또한 존재하고, 내부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반발 또한 존재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쓰시마는 이렇게 경계를 구성하는 담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 역동적인 경계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토분쟁이 강하게 드러나는 국가주의적 공간인 독도와 대비되어 대안적으로 국경문제를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환적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를 구성하는 경계들에서는 국가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광에서 시작한 교류 지역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계공간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쓰시마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계공간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환을 제시한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탈냉전 교류의 섬’ 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대만 금문도의 사례처럼, 이러한 갈등의 지정학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한다. 쓰시마 또한 단순한 예외사례로 존재하기보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경계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동남부와 큐슈 북부를 잇는 해저터널에 관한 기사가 종종 들려오는데,

시공 가능한 잠재적 설계노선이 하나같이 모두 쓰시마를 경유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의 측면에서 아직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한-일 교류의 중심,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점으로서 쓰시마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 2. 제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우선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스케일의 여러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간접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조사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쓰시마’라는 지역이 결코 하나의 개체로 다룰 수 없는 지역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스케일의 지역적 차이나 맥락적 이해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여 섬 내부의 역동이나 차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행위자 면담의 진행과, 조선통신사, 혹은 국제교류와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쓰시마 내의 지역스케일에서는 어떤 차이나 역동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혜선. 2017. 조선 통신사의 일본에서의 연행(演行), 우리文學研究, 55 : 7-35.
- 김경임. 2015.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곱시, 서울.
- 김동철. 2010. 조선후기 통제와 교류의 장소, 부산 왜관, 한일관계사연구, 37 : 3-36.
- 김상훈. 2011.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요구 -국제사회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논단, 264(0) : 68-79
- 김용훈. 2010. 근대한일교류 분석을 통한 대마도 영토권원, 白山學報, 87 :225-248.
- \_\_\_\_\_. 2012. 국제재판사례 분석을 통한 대마도 영토권 회복방안 연구. 白山學報, 93 : 141-168.
- 김일환. 2012. 「세종대 대마도정벌의 군사적 전개과정」
- 김인현. 2017,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와 대마도(對馬島)의 관계(關係), 日本語教育, 79 : 131-148.
- 나카무라 야에. 2016. 대마도의 지역정체성의 재구축 -조선통신사와 위인을 둘러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9(1) : 19-37.
-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 다시로 가즈이. 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서울
- 무라카미 가즈히로. 2015. 근현대 쓰시마의 “한일교류” 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욱. 1997. 대기업도시의 성장연합과 권력엘리트, 한국과국제정치, 13(1) : 61-88.
- 박배균. 2001. 규모의 생산과 정치, 그리고 지구화, 공간과 사회, 16 :

- 200-224.
- 박배균. 2006.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5 : 8-40.
- 박배균. 2006. 도시와 정치, 도시해석, 김인·박수진 외, 푸른길, 서울
- 박배균. 김동완, 2013. 국가와 지역. 알트. 서울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배규성. 2013.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일본문화연구, 47 : 213-238.
- 손기섭. 2016. 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19(1) : 159-183
- 심민정. 2013a. 삼포왜란의 발생원인과 대마도, 동북아 문화연구, 34 : 67-84.
- 연민수. 2003. 고대 한일관계사의 쟁점과 사료. 日本歴史研究, 17 : 61-80.
- 윤상호. 2014, 동아시아 신민족주의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숙. 2007. 일본고전문학을 통해 본 규슈의 해안도시 - 북규슈의 처마(쓰시마), 壱岐(이키), 筑紫(츠쿠시)를 중심으로 하여 -. 동아시아고대학, 15 : 277-307.
- 이근우. 2010. 통일신라시대의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59-85.
- 이성호. 2008. 새만금 간척사업과 지역 성장정치. 지역사회연구 16(4) : 55-77, 한국지역사회학회
- 이영. 2010. 고려말, 조선 전기의 왜구와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87-131.
- 이영. 2013a, 고려 말 왜구의 ‘다민족 복합적 해적’ 설에 대한 재검토, 지역과 역사 33 : 5-28.
- 이영. 2013b, 고려말의 왜구와 대마도, 전란기의 대마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엮음.



- 이종열·이형룡. 2017, 역사유산 관광 체험 동기와 자아 정체성 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마도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 관광학 연구, 41(5) : 53-72.
- 이창위. 2018.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의의 전개. 서울법학, 26(1) : 233-266.
- 장세룡. 류지석. 2010. 기업주의 도시 로컬리티의 타자성 :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연관시켜서, 인문연구, 58
- 장인성. 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 정선자. 2012, 대마도 방문 한국인 관광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6 : 395-412.
- 정성일. 2010. 조선 후기 부산과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175-208.
- 정성일. 2017. 왜관의 일기로 본 조·일 간 무역(1721~23년), 한일관계사연구, 58 : 179-212.
- 장순순. 2017.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對日外交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56 : 55-94.
- 정장식. 2005, 통신사를 따라 일본 에도시대를 가다, 고즈윈, 서울
- 정효운. 2010, 대마도와 고대한일관계사.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13-40.
- 최승희. 2012, 한국과 대마도의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최운도·배진수. 2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영토해양연구, 10 : 104-131.
- 최종호·정한울·정현주. 2014,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관계연구, 19(1) : 41-76.
- 최진희. 2013. 대마도와 소 요시토시(宗義智) 연구, 부경대학교
- 하우봉. 2010. 조선전기의 부산과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 135-174.
- 한문중. 1997.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전북사학, 19·20 : 155-177.

한문중. 2014. 조선시대 對日使行과 對馬島. 한일관계사연구, 49 : 311-351.

<해외문헌>

Agnew, J.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53-80.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4177090>

Brenner, N. 2001.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591-614.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x, K. and Mair, A., 1989, Levels of abstraction in locality studies, *Antipode*, 21(2), pp.121-132.

Cox, K., 1998, Spaces of dependence, spaces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17(1), pp.1-23.

Croxton, D., 1999 The Peace of Westphalia of 1648 and the Origins of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1:3, 569-591

Howitt, R., 1993, Social Impact Assessment as 'Applied Peoples' Geography' .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1: 127-140.

Kolossov, V., 2005. Border Studies: Changing Perspectiv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Geopolitics*, 10:4, 606-632,

Logan, J. R. and Molotch, H. L., 200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 of California Press.

- McMaster, R. and Sheppard, E. 2004.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 nature, society, and method , Wiley–Blackwell
- Mountz, A. Political geography II: Islands and archipelagos
-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22(2):186–207
- Nye, J.,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Ohmae, K. 199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New York: Free Press
- Okhonmina, S., 2010, States without Borders: Westphalia Territoriality under Threat, *Journal of Social Sciences*, 24:3, 177–182
- Paasi, A., 1998, Boundaries as Social Processes: Territoriality in the World of Flows, *Geopolitics*, 3(1), pp.69–88
- \_\_\_\_\_, 2003,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London
- \_\_\_\_\_, 2005 Gener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 studies. *Geopolitics*, 10(4), 663–671.
- \_\_\_\_\_, 2009, Bounded spaces in a ‘borderless world’ : border studies, power and the anatomy of territory, 2(2), pp. 213–234
- Park, B–G.,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397–414,
- Sack, R. D. 1986. *Human territoriality : its theory and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阿比留正臣(Abiru, Masaomi), 2015. 国境の島の国際交流—朝鮮通信使を掘り起こした対馬市の試み(국경의 섬의 경제교류—조선통신사를 발굴해낸 쓰시마시의 시험), 神田外語大学グロー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講演, 31
- 橋本雄(Hashimoto, Yu), 2005, 肥後地域の国際交流と偽使問題(히고지역의 국제교류와 위사문제), 「中世日本の国際関係, 東アジア通交圏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 孔義植(Kong, Euisik), 2014, 対馬市と影島区, 対馬市と蔚州郡との交流に関する研究報告(쓰시마시와 영도구, 쓰시마시와 울주군의 교류에 관한 연구보고), 法学紀要 日本大学法学部政経研究所 56, 371-401,
- 愼蒼宇(Shin, Chang u), 2016, 「境界」の島対馬の朝鮮人社会に関する総合的研究—19世紀後半~1960年代(‘경계’의 섬 쓰시마의 조선인사회에 관한 종합적 연구—19세기말~1960년대), 科学研究費助成事業研究成果報告書.
- 申英根(Shin, Young Kun), 2014. 対馬市における韓国との国際交流および地域活性化について—長崎県対馬市の「対馬アリラン祭」を事例として—(쓰시마시의 한국과의 국제교류 및 지역활성화에 관해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쓰시마아리랑축제’를 사례로—), 『史淵』, 151,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 田中景(Tanaka, Kei), 2015, [境界域]の人々の祭り—厳原港祭りと対馬アートファンタジア—(‘경계지역’의 사람들의 축제—이즈하라항축제와 쓰시마아트판타지아—), 東経大学会誌人文自然科学, 137, pp. 59-74.
- 鶴田啓(Tsuruta, Kei), 2006, 対馬から見た日朝関係(쓰시마에서 본 조—일관계), 山川出版社
- 上島智史(Ueshima, Satoshi), 2012, 日朝交流の記憶と景観: 厳原・釜山を中心に(조일교류의 기억과 경관: 이즈하라·부산을 중심으로), 長崎大学中点研究プロジェクトシンポジウム「記憶の風景とその表象」

<보고서>

- 対馬市, 2015, 『対馬市長期人口ビジョン』  
쓰시마시, “2015, 쓰시마시 장기인구 비전”
- \_\_\_\_\_, 2015a, 『第2次対馬市総合計画』  
쓰시마시, “제2차 쓰시마시 종합계획”
- \_\_\_\_\_, 2015b, 『対馬市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쓰시마시, “쓰시마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종합전략”
- 対馬市, 2017, 『対馬市観光振興推進計画』, 観光交流商工部  
쓰시마시, “쓰시마시관광진흥추진계획, 관광교류상공부 관광상공과”
- 長崎県, 2016, 『長崎県総合計画 チャレンジ2020』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 종합계획 챌린지 2020”
- 対馬市, 2018, 『JA共済総合研究所地域報告』  
쓰시마시, “JA공제종합연구소 지역보고”

<기사자료>

동아일보, 2014.09.13. ‘[토요판 커버스토리] “통신사가 日에 조공? 말도 안되는 얘기”’

<http://news.donga.com/3/all/20140913/66356714/1>

부산일보, 1959.09.15. ‘密輸 休日 없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19590915000080>

부산일보, 1999.03.19. ‘연안해운업계 자구책 마련 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19990319000653>

제이피뉴스, 2012.02.07. ‘日 독도편 운항 韓해운회사 보조금 논란’

<http://m.jpnews.kr/a.html?uid=12806>

프리미엄조선, 2014.11.29. ‘또 佛像 도난당한 쓰시마... '한국인 출입 금지' 간판까지’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9/2014112900127.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9/2014112900127.html)

<온라인 페이지>

나가사키현청 홈페이지 <https://www.pref.nagasaki.jp>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caf.or.kr/00main/main.php>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http://www.city.tsushima.nagasaki.jp/>

NPO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홈페이지 <http://enchiren.com/>

Abstract

# Cross-Border Coalitions and Border Island

: Tsushima from Political and scalar  
perspectives

박지혁(Jihyuk Park.)

사회교육과 지리전공(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Geograp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patial aspects of boundaries in East Asia where various conflicts arise based on nationalistic awareness and discourses. More specificall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border areas is another main object of this study. To this end, Tsushima is selected as a case study and its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 examined. Tsushima has historically been a space of a diverse dynam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even today it is a border space where cross-bor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being made.

This study starts by exploring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 of Tsushima as a border reg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an in-depth study of the border space.

In addition, it trac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of, and processes through which, Tsushima is presently forming a transnational “growth coalition”. Finally, as an example of a transnational coalition, attention is paid to the Documentary Heritage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gether, enroll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November 2017. Through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how the UNESCO list was promoted by whom, and in what context, and how it was possible given internationally inflated Korea–Japan re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space of Tsushima is suggested.

In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 Tsushima has been a space of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exchanges and conflicts. It has existed as a boundary space that has been fluctuating repeatedly in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that has appeared different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has been at times exploited and unstable, always looking for strategic survival. The growth coalition began with the combination of contingent elements, in a way that Tsushima, which had been hit by a demographic decline, survived. In the Tsushima area, actors with a place-based interests have been drawn to cooperate with the Busan area in Korea to maintain solidarity through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region.

As a result, many Korean tourists are interested in Tsushima, and the success of tourism industry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island’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recent years, a transnational growth alliance, a supranational border alliance, has been formed with the aim of registering the UNESCO World Record Legacy of the Chosun Communications Agency. The actors of Busan region and Tsushima interacted across borders. As a result, actors at the local scale united and created a space of a solidarity without participating actor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sushima's boundary space and its survival strategy deploying the theory of growth coalitions. It observes the process of unifying the Tsushima and Busan boundaries through scale politics.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boundary recognition that transcends a nationalistic national border perceptions commonly held in East Asia.

**keywords : Tsushima, Politics of Scale, Cross-border Coalition,  
Growth Coalition, Border Space**

*Student Number : 2017-28038*